10.15686/fkl.2018..44.7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여성 감금

탁원정 *

차례

1. 서론
2.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여성 감금 양상
  2.1. 시댁에 갇히기
  2.2. 친정에 갇히기
3.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여성 감금의 성격과 의미
  3.1. 여성 감금을 통한 여성 처벌의 성격
    3.1.1. 가문의 이름으로 내밀화된 처벌
    3.1.2. 자폐적 수계(囚繫)와 절반의 교화
  3.2. 시댁과 친정에서의 감금의 성격
    3.2.1. 일상 공간의 비일상화, 시댁
    3.2.2. 명예살인이 시도되는 공간, 친정
4. 여성 공간의 유형성과 그 변주: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완월회맹연> 속 여성에 대한 네 가지 대표적인 감금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 여성 감금의 성격과 의미를 진단해 본 것이다.

여성 감금 양상은 먼저 '시댁에 갇히기'이다. 소교완은 며느리 이자염을 없애기 위해 독살 사건을 조작한 후 이자염을 벽실(僻室)에 가두고 살해 직전까지 몰고간다. 여씨는 남편 장세린이 다른 여자와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발악하다 후원의 초실에 갇히고, 이후 탈출했다가 다시 갇힌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다. 다음은 ‘친정에 갇히기’이다. 소교완은 정인성 부부를 괴롭힌 일들이 친정에 알려져 두 차례의 친정행을 하게 되고, 독살당하거나 자살의 위기 이후 친정 후원에 갇히게 된다. 정인성의 첩 양일아는 정실과 다른 첩에 대한 모해 등이 알려져 친정으로 가게 되는데, 친정아버지에게 독살되기 직전 겨우 살아난 후 후원에 갇힌다.

이와 같은 여성 감금의 성격과 의미로, 먼저 여성 감금을 통한 여성 처벌의 성격은, ‘가문의 이름으로 내밀화된 처벌’과 ‘자폐적 수계(囚繫)와 절반의 교화’이다. 다음으로, 시댁과 친정에서의 감금의 성격은 ‘일상 공간의 비일상화, 시댁’과 ‘명예살인이 시도되는 공간, 친정’이다.

<완월회맹연>에서 나타난 여성 인물의 감금 양상은, 국문장편소설 속 여성과 공간의 새로운 유형성을 공유하면서도 친정 감금이라는 변주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핵심어 : 감금, 시댁, 친정, 벽실, 내밀화된 처벌, 자폐적 수계, 절반의 교화, 명예살인

1. 서론

17세기 <소현성록>으로부터 시작된 국문장편소설에서는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문제들에 대한 처리와 처벌이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진다. <소현성록>의 경우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여가장 양부인이 실절한 딸에게 독약을 내려 죽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며, 이후 집안의 가장 자리를 물려받은 소현성에 의해 아들 소운성이 술 취해 놀았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심당(深堂)에 갇히거나 매를 50대씩 맞는 것, 또한 소운명이 첫째 부인 임씨의 모함을 믿고 둘째 부인 이씨를 후원의 심희당에 가둔 것 등도 그런 예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완월회맹연>은 180권이라는 가장 방대한 분량의 국문장편소설로, 주인공 가문인 정씨를 비롯한 주요 가문의 부중

(府中)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역시 대부분의 경우 집 안에서 그 처리와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성 관련 사건의 경우, 억울한 누명이든 실제 악행에 대한 처벌이든 여성들에 대한 처벌에서 두드러지는 공간의 행위 지표가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갇히다'이다.

시어머니 소교완의 며느리 이자염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 과정에서 누명을 쓴 이자염이 남편 정인성의 명으로 누실에 갇히고, 이때 가해자였던 소교완조차 그 악행이 드러나 아버지의 명으로 친정의 후원 누실에 갇히며, 장세린의 부인 여씨는 장세린의 부실(副室)인 정성염에 대한 질투로 인한 악행 때문에 남편 장세린의 명으로 누실에 갇혔다가 병이 깊어져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 외에도 악행이나 누명 등으로 집안의 누실에 갇히는 여성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1)]

사실 이처럼 여성 인물의 처벌 과정에서 여성 인물이 집 안의 특정 공간에 갇히는 것은, 서두에 언급한 <소현성록> 이후의 국문장편소설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2)] 그런 점에서 '집안 내 여성 감금'은 국문장편소설 속 여성과 공간의 유형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3)]

---

1) 정씨 가문의 딸 정월염은 시댁에서 장창린의 첩 박교랑의 모해로 심원 벽처에 갇히고, 주씨 가문의 딸 주숙염은 친정에서 계모 여씨에 의해 해심옥에 갇히며, 양씨 가문의 딸 양일아는 쟁총 관계의 한난소를 철편으로 때린 일로 인해 하영당에 갇힌다.

2) <조씨삼대록>에서 조월염이 갇힌 은설정이나 조자염이 갇혔던 취음정, <유효공선행록>에서 정씨가 취설정, <쌍천기봉>에서 이빙성이 갇혔던 춘영당, <이씨세대록>에서 이미주가 갇힌 회원정, 이 밖에 <임화정연>연작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심당이나 냉옥, 누실 등이 그런 예이다.

3) 기존의 국문장편소설 속 여성과 공간의 유형성 문제는 여성 수난과 관련하여 집을 떠나 유리하거나 집 밖의 일정 공간에 머무는 여성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309~343쪽;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경상대학교배달말학회, 2009, 217~255쪽;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언어학, 2009, 223~269쪽;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87~232쪽;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국어국문학회, 2009, 365~410쪽;

<완월회맹연> 속의 여성 감금 또한 그런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완월회맹연>의 경우 연구 초기부터 여성 친연적인 성격이 거론되었고[4], 이후 여성소설로 규정되는가 하면[5] 여성들의 일상이나 여성 인물, 여성 갈등에 주목한 논의도 다수 이루어지는[6]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87~232쪽,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 고전소설 속 여성들의 길 떠나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권, 2017, 103~132쪽.) 17세기의 가정소설인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여성과 공간의 유형성을 논한 논문에 의하면, 국문장편소설 속 여성 수난과 관련하여 집 밖 유리나 일정 처소에 머무는 것은 이미 가정소설에서도 유형적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집 안의 여성에게 특정 공간에 가두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유형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5, 154~158쪽.) 그런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과 공간의 유형성이 주로 '집 밖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집 안 여성 감금'은 '집 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문장편소설 속 여성과 공간의 또 다른 유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병설, 『완월회맹연연구』, 태학사, 1999, 1~326쪽.

5) 정창권은 <완월회맹연>을 '여성소설'로 규정하면서 여성소설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여성소설에는 여성과 여성이 서로 다투어 적대시하는 처처나 처첩갈등은 매우 드물다. 설령 악한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작가는 그녀의 행위에 충분한 현실적 타당성을 부여해서 궁극적으론 세상의이치를 깨닫고 더불어 함께 살도록 설정하였다. 심지어 이들 소설의 여성들은 남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더라도 둘 중 한 사람이 남편과의 부부싸움에서 고난을 당하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남편과 무관한 그녀들만의 또다른 세상을 만들기조차 한다."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00, 89쪽. 한길연 또한 " <완월>은 여성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거의 모든 인물과 사건에 결부 짓고 있다 할 만큼 여성주의적 시각을 깊이 있게 노정한다. 대하소설 전반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표출하지 않은 작품이 드물 정도로 대하소설은 여성과 친연성이 깊지만, <완월>은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을 공을 들여 투영하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라고 하여 여성소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30~31쪽.

6) 여성이 초점화된 논의를 몇몇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옹서대립담 연구: 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277~315쪽, 이은경,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어머니의 양상과 의미」, 『개신어문연구』 21, 개신어문학회, 2004. 149~181쪽, 이지영,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품에서 나타나는 집안 내 여성 감금은 그 성격과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런 전제 하에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네 가지 대표적인 감금 양상을 정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 여성 감금의 성격과 의미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7]

2.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여성 감금 양상

2.1. 시댁에 갇히기

2.1.1. 이자염

정부의 장자인 정잠은 아들이 없자 조카인 정인성을 양자로 들이고 집안의 계후(繼後)로 삼는다. 이후 부인 양씨가 죽자 소교완을 후처로 들이는데, 소교완은 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들 정인중과 정인웅이 계후자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정인성에 대한 미움을 키워가고 정인성은 물론 정인성의 부인 이자염까지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흉계를 꾸미고 괴롭힌다.

그러던 중 정잠이 외지에 나간 상황에서 소교완은 왕술위라는 인물을 이용하여 며느리 이자염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건을 조작한다. 소교완에게 절대적 효를 행하는 정인성은 왕술위가 의심스러움을 알면서도

2005, 33~56쪽, 장시광,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7, 동양고전학회, 2012, 7~50쪽, 한정미, 「<완월회맹연> 여성 인물간 폭력의 양상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435~397쪽,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희담(戱談)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73~310쪽, 김서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천상계의 특성과 의미 : 모자 관계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8, 한민족어문학회, 2014, 361~390쪽.

7) 본고의 텍스트는 장서각본 180권 180책으로,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의 한자병기 입력본을 활용하였다. 본문에서는 권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이자염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이자염은 당 밖에 내려가 죄를 청한 후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시녀들이 머무는 방에서 지낸다.

정인성이 소교완의 처소에 와서 자신과 이자염의 불효에 대해 석고대죄하면서 이자염을 칠거지악의 죄로 출거(黜去)시키길 청하지만, 소교완이 곁에 두고 괴롭히는 것이 더 나으리라 판단해 이를 거절하자 정인성은 어쩔 수 없이 벽실(僻室)에 가둘 것을 청한다.

> 대개 이 일이 의심간의 이셔 졀노쎠 일편도이 ᄉᆞ죄(死罪) 즁슈(重囚)로 밀위지 못ᄒᆞ올진ᄃᆡ **아직 은혜로 베퍼 칠거(七去)로 지명ᄒᆞ와 일가지ᄂᆡ의 머무라지 아니 ᄒᆞ미 엇더ᄒᆞ리잇고**.....소부인이 임의 일일히 혜오ᄃᆡ 그 셩회 뉴의예 쒸여ᄂᆞ고 빅힝이 셰샹의 더부러 갓탄 ᄌᆡ 업ᄉᆞ믈 더욱 ᄉᆡ오ᄒᆞ고 통한ᄒᆞ여 업시키 어려오믈 근심ᄒᆞ미 그 긔특ᄒᆞ믈 볼ᄉᆞ록 믜오미 층가ᄒᆞ니 츄호의 감동ᄒᆞ난 의ᄉᆡ 업ᄉᆞ나 너모 노칙(怒責)ᄒᆞ고 견집ᄒᆞ믄 가치 아니 ᄒᆞ고 **또 니시를 츌거ᄒᆞᄆᆡ 그 친부의 도라가 안한 무ᄉᆞᄒᆞ미 이에셔 보치고 졸니여 위란코 슬픈 졍셰의셔 ᄂᆡ도ᄒᆞ니 이난 도로혀 위ᄐᆡᆨ한 거술 붓드러 평안ᄒᆞᆫ 곳의 닐위미라.....**비록 일시의 엄졍쳐치를 두지 못ᄒᆞ오ᄂᆞ ᄉᆞ체 물시ᄒᆞᆯ ᄇᆡ 아니오니 감ᄉᆞ지뎐(減死之典)ᄒᆞ여 져를 심쳐(深處)의 계계 슈졸케 ᄒᆞ난 거시 가ᄒᆞᆯ가 ᄒᆞ옵ᄂᆞ니 이에 ᄃᆞ다라난 져의 인ᄉᆞ도 죄루를 싯고 화당의 거ᄒᆞ난 불ᄉᆞᄒᆞ미의셔 나은지라. **명죠의 왕모와 야야긔 고ᄒᆞ고 후졍 벽실(僻室)노 ᄂᆞ리오고져 ᄒᆞ오므로 몬져 미의(微意)를 품달(稟達)ᄒᆞ옵ᄂᆞᆫ 바난 실노 져의 죄과를 다ᄉᆞ리미 ᄋᆞ니오, 그 어ᄌᆞ러오믈 계칙할 ᄯᅡ람이니**(권87)[밑줄, 강조 인용자. 이하 동일]

이자염은 시비 운섬, 혜월 등과 거처를 북원 초실로 옮기는데, 따라온 정인경 등이 오랫동안 폐실로 있던 초실에 화기를 넣으려고 불을 떼려 하지만 이자염은 죄인의 몸으로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하고 풀자리와 풀베개로 지낸다.[8]

---

8) **상셰 후졍 복실 초ᄉᆞ의 니부인 슈계ᄒᆞᆯ 곳을 졍ᄒᆞ고 일숑 죽교로 복실을 향케 ᄒᆞ니** 니시 소부인긔 ᄒᆞ직을 ᄆᆞᄎᆞᄆᆡ 뎨ᄉᆞ 소고로 숀을 ᄂᆞᆫ화 교즁(轎中)의 올으ᄆᆡ 운셤

ᄯᅴ예 니부인이 비실의 니ᄅᆞ미 일간 초실의 누츄ᄒᆞ고 옹식ᄒᆞ여 ᄎᆞ마 일시 견딜 ᄇᆡ 아니오. **집 우히 파훼(破毁)ᄒᆞ여 하날이 빗최니 풍우를 능히 가리오지 못ᄒᆞᄂᆞᆫ 즁 젼갈(全蠍) ᄉᆞ갈지뉴(蛇蝎之類)와 초츙(草蟲)이 초실의 편만(遍滿)ᄒᆞ여 몸을 붓쳐 디졉(止接)ᄒᆞᆯ 곳이 업ᄂᆞᆫ지라.** ᄒᆞᆫ 닙 거젹을 어더 초실의 ᄭᆞᆯ고 쇼졔 안ᄌᆞ시ᄆᆡ ᄉᆞ갈 오공(蜈蚣)이 좌우로 뽀긔라니 유랑 운셤이 디원극통을 니긔지 못ᄒᆞ여 통읍ᄒᆞ믈 마지 아니 ᄒᆞ더라. **일일 소식을 쥬ᄂᆞᆫ ᄇᆡ 업셔 일긔 ᄆᆡ듁(麥粥) ᄯᅳᄅᆞᆷ이오, 소금도 쥬디 아니며 초실 죄우의 흙담을 놉히 ᄡᅡ하시니 젼면의 외ᄯᅡᆨ 문을 봉쇄ᄒᆞ여 사ᄅᆞᆷ이 왕ᄂᆡ치 못ᄒᆞ게 ᄒᆞ며 담의 조고마ᄒᆞᆫ 굼기 잇셔 음식을 쥬더라.**(권90).

이자염이 머무는 북원 초실은 지붕이 헐어 바람과 비를 가리지 못하고 전갈이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녀 한 곳 편히 몸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다. 소교완은 흙담을 높이 쌓고 문을 봉쇄하여 사람의 왕래를 금하고 담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어 그곳으로 보리죽 정도의 음식만 제공한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소교완은 이자염에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베를 짜라고 명하고, 이자염은 시어머니의 명을 따르기 위해 벽을 일부 허물어 베틀을 놓은 후 밤낮으로 베를 짠다.[9] 그러던 어느 날 이자염에게 베 짜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질책한 뒤 시비를 시켜 벽실 주변에

혜월 양유랑과 홍소 월ᄂᆞᆫ 등 ᄉᆞ오기 시ᄋᆡ 조ᄎᆞ 북실노 나아가니 경식의 쳐초 비량ᄒᆞ믄 완연이 죄인의 힝계로ᄃᆡ 닌경 등 졔공지 조ᄎᆞ ᄂᆞᄋᆞ가 원듕(園中)을 각별이 슈호ᄒᆞ믈 원ᄌᆞ의게 분부ᄒᆞ고 **초실을 잠간 쓰셜고 싀목(柴木)을 두어 누년 폐ᄒᆞ엿던 방의 화긔를 통코져 ᄒᆞ니 ᄎᆞ일 단이 ᄉᆞ죄(死罪) 즁슈(重囚)의 계유홈과 다ᄅᆞ다 ᄒᆞᆯ 거시로ᄃᆡ 부인이 슉슉 등의 후의를 ᄉᆞ례ᄒᆞᆯ지언졍 죄루의 쳐ᄒᆞᆫ 지 감히 평상치 못ᄒᆞᆯ 바를 일ᄏᆞ라 초실의 화긔를 통치 ᄋᆞ니 ᄒᆞ고 풀ᄌᆞ리와 풀벼기를 베푸고 두문(杜門) 폐호(廢戶)ᄒᆞ여 극죄 누인의 쳐ᄒᆞᄂᆞᆫ ᄇᆞ로 ᄃᆞᄅᆞ미 업더라.(권88)**

9) 뎡당 부인 명으로 딕져(織紵)를 맛디ᄃᆡ 날을 쵹박(促迫)히 ᄒᆞ여 심히 최급ᄒᆞᆫ지라. **터히 좁으니 쇼졔 민망ᄒᆞ여 벽을 허러 뵈틀 기ᄀᆞᆲ을 초실 밧그로 ᄂᆡ여 딕져ᄒᆞ기를 쥬야로 노고(勞苦)ᄒᆞᄃᆡ 부인의 명ᄒᆞᆫ 긔한의 밋기를 더딜가 초우(焦憂)ᄒᆞ믈 마지 아니 ᄒᆞ더라**. 냥개 유랑이 쥬야 셜워 식음의 맛ᄉᆞᆯ 모르니 의형(儀形)이 초고ᄒᆞ미 죽게 되여시니 ᄒᆞ믈며 쇼져를 니ᄅᆞᆯ ᄇᆡ 업더라. 윤오월 습슌(拾旬)의 님위(霖雨) 더옥 디리ᄒᆞ고 쵹급ᄒᆞ더니 ᄯᅴ예 니부인이 비실의 하위 삼삭이라.(권90)

땔감을 쌓고 불을 피워서 이자염을 연기와 화기 속에서 죽이고자 한다. 그럼에도 이자염은 정신력으로 버틴 채 계속해서 베를 짜 정해진 양을 맞춰 시비에게 가져가라고 한다.[10] 새도 들어오지 못하게 높은 흙담장 안의 초실은 그야말로 화로 같아 이자염과 시비들이 거의 죽기 직전에 처하는데, 그때 마침 화부인이 유모를 시켜 몸에 연기와 화기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징수백을 갖다 주자 이를 몸에 두른 이자염은 목숨을 부지한다.[11]

소교완은 출거시키면 이자염을 편하게 하는 것이고 친정에서 죽이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해 집 안에 가두게 한 것이었으나[12], 이자염이 죽지도 않고 매번 시키는 일을 다해내자 분통을 터뜨리던 차에, 이자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 이번에는 직접 벽실로 찾아가 이자염을 초실 밖으로 끌어낸 후 시비들을 시켜 이자염을 철편으로 혹독하게 쳐서 숨이 끊어지게 한 뒤 단도로 얼굴 가죽을 벗긴 후에 입에 독약을 붓고 남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후원의 연못에 버린다.

이자염은 시동생 정인웅에 의해 겨우 살아나 집안의 안전한 곳에서 구호받으며 지내지만, 이 사건이 발각될까 불안해하는 소교완을 위한 남편 정인성의 제안으로 친정으로 귀녕(歸寧)하게 된다.

---

10) 이는 <조씨삼대록>에서 시어머니 구부인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취음정이라는 냉옥에 갇힌 조자염의 베짜기 양상과 유사하다. 구부인은 조자염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바느질, 베짜기 등의 일을 정신없이 시키는데, 그 상황에서도 바느질 솜씨는 약란의 신이한 재주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고, 보통 사람이 열흘 할 일을 하루에 마쳐 천상 직녀도 못 미칠 재주이다. <조씨삼대록> 27권(전진아 역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조씨삼대록4』, 소명출판,2010, 221쪽.)

11) 연기와 화기로 가득한 초실에서도 태연히 베를 짜는 이자염의 모습은 비현실적이고 그런 점에서 그녀의 고난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데(장시광 역시 <명주보월빙>의 여성 인물들의 고난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이는 실제 악행으로 감금된 다른 인물들의 감금 상황과 대비된다.

12) 죄명이 강상을 범ᄒᆞ여 츌거ᄒᆞᄆᆡ 쇼져의 신세 비록 볼 거시 업ᄉᆞ나 친당의 도라가ᄆᆡ ᄌᆞ신이 편홀디라 됴히 머물미 통악ᄒᆞ고 그 부모의게 도라보ᄂᆡ면 ᄌᆞ개 져를 살명(殺命) 쳐치홀 길히 어려온디라. 부윽이 츌거를 막으ᄆᆡ 후당(後堂) 비실의 머므ᄅᆞ니 이 ᄌᆞ가의 뜻을 맛쳣ᄂᆞᆫ디라.(권91)

2.1.2. 여씨

여씨는 장헌의 셋째 아들 장세린의 첫째 부인이다. 혼례 날부터 박색이라는 이유로 장세린에게 박대를 당하던 중 장세린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도하다가 시부모에 의해 친정으로 쫓겨난다. 출부(黜婦)가 되어 친정에 있던 여씨는 장세린이 정성염과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해하다가 장세린이 장원급제했음을 듣자, 장세린의 처에게 내려질 봉관화리(鳳冠花履)와 명부(命婦)의 직첩이 정성염에게 갈 것에 분노하여 곧장 장부로 찾아간다. 여씨가 장부로 오자 장헌은 “이미 출부이고 버려져 우리 집안과 상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변을 만드니 여자의 행실이 앞으로도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13] 하면서 여씨를 여부로 돌려보내려 하지만, 여씨는 정성염에 대한 독설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아버지 장헌까지 넘어뜨리며 발악을 한다. 이때 돌아온 장세린은 하인들을 시켜 교자에 억지로 넣어 여씨를 친정에 돌려보내려 하지만, 여씨가 하인들을 난타하며 거부하자 여씨를 후원의 초실로 보내고, 그 주변에 가시덩굴을 높이 올려 새도 드나들지 못하게 엄쇄(嚴鎖)한다.[14]

후원 초실에 갇혀 있는 여씨는 처음에는 욕설이 그칠 새가 없다가 친정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오래 되자 기세가 위축되어 주는 음식을 순순히 먹고 욕설도 그치게 되었는데, 정성염이 시댁에서 칭송을 받자 참았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욕설을 시작해 장부 사람들이 듣고 자신을

13) 네 비록 셰린의 안히 되여시나 임의 츌부(黜府) 기인(棄人)으로 오문의 아룽 곳 업는 ᄉᆞ름이어ᄂᆞᆯ 명업시 스ᄉᆞ로 나와 작변코져 ᄒᆞ니 녀ᄌᆞ의 힝실이 이ᄀᆞᆺ고 장ᄎᆞᆺ 므ᄉᆞ 일을 못ᄒᆞ리오(권162)

14) **혹식 난두의 좌ᄒᆞ고 가즁 냥낭 복쳡을 다 불너 일시의 녀시ᄅᆞᆯ 즙아 후원 초실의 나리오라 ᄒᆞ니** 호졍(戶庭)이 싱풍(生風)ᄒᆞ여 위엄이 녈녈ᄒᆞ니 뉴미(柳眉) 셩안(星眼)의 춤엄ᄒᆞᆫ 노긔 어릭여 한슉ᄒᆞᆫ 빗치 ᄉᆞ좌의 ᄇᆞᆺ이고 빵안이 진녈ᄒᆞ니 빅은 반쥭션(班竹扇)을 드러 난간을 두ᄃᆞ리ᄆᆡ 창파의 교룡이 동졍호 팔빅니ᄅᆞᆯ 쓸케 ᄒᆞ니 어별(魚鱉)이 다 쥭으며 태산의 밍회 푸ᄅᆞᆷᄒᆞ니 **녀시 비록 도시 담이나 감히 발악지 못하고 머리ᄅᆞᆯ 숙여 졔녀의 미러 너흐믈 바드니 혹식 드드여 장확(壯擭)을 명ᄒᆞ여 형극(荊棘)을 하ᄂᆞᆯ의 다케 비됴(飛鳥)도 드지 못ᄒᆞ게 엄쇄(嚴鎖)ᄒᆞ고**(권162)

돌려보내기를 바라지만, 장부 사람들의 인적 자체가 이르지 않자 결국은 초실 주변의 가시덩굴을 뛰어넘어 밖으로 나온다.

> **일즉 댱흑ᄉᆞ 곤계 발ᄌᆞ쵝 후졍의 님치 아니니 무가닉하(無可奈何)라** 몸을 ᄲᅥ혀 형극을 버셔나ᄆᆡ 흔번 쾌히 졍시를 난타ᄒᆞ고 본부로 도라가고져 ᄒᆞ여 댱일의 일업시 안ᄌᆞ 벽을 ᄯᅳ드며 불로 ᄎᆞ고 손으로 ᄯᅳ드ᄆᆡ ᄉᆞ롬이 왕ᄂᆡ홀 만ᄒᆞ거ᄂᆞᆯ **이에 가연이 굼글 ᄲᅮ여나 쳠하를 발바 집 우히 올나 형극을 ᄲᅮ여넘으니 지둔ᄒᆞᆫ 몸이 놉흔 ᄃᆡ셔 나리ᄲᅮ니 ᄯᅡ히 울니며 ᄯᅬ히 문허지는 듯ᄒᆞᆫ 소릐 ᄉᆞ롬을 도옥드리고 놉흔 울 넘는 소릐 ᄀᆞᆺ더라. 오릐 방즁의 안치ᄒᆞ여 촌보를 움죽이지 아닌 ᄇᆞ로 졸연 거동ᄒᆞᄆᆡ 각통(脚痛)과 불목이 ᄉᆡ여 힝보를 일우기 어렵거ᄂᆞᆯ ᄲᅮ여나리ᄆᆡ 풀과 ᄃᆞ리 브러지고 속이 다 질니여 알프믈 니긔지 못ᄒᆞ니 브지불각의 소릐 쳐 엉엉 우니 소릐 ᄉᆡ험ᄒᆞ여 공산의 ᄆᆡᆼ회 우는 ᄃᆞᆺ ᄒᆞ더** 야심삼경의 만뇌(萬賴) 구젹(俱寂)ᄒᆞ니 이 소릐 알 니 업고 녀시 직희엿던 시비도 ᄯᅩᄒᆞᆫ 이 변은 쳔만 의외라 곤ᄒᆞ므로 조ᄎᆞ 즘이 깁허시니 젹연이 ᄭᆡᆫᄃᆞᆺ지 못ᄒᆞᄂᆞᆫ지라 방심ᄒᆞ여 슬컷 울고 알픈 다리를 ᄀᆡ ᄉᆞᄆᆞᆫ ᄃᆞᆺ 졍쇼져 침소 목난졍의 니ᄅᆞ니(권167)

여씨는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오래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니 통증이 더욱 심해 엉엉 울면서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정성염의 침소인 목란정에 이른다. 창밖에서 정성염과 장세린의 정겨운 모습을 본 여씨는 당장 쳐들어가 정성염을 때려죽이고 싶지만 장세린이 두려워 참다가 날이 밝아 장세린이 먼저 나가자 정성염을 공격해 기절하게 하고 칼로 찌르려 한다. 마침 이 상황을 알고 장부 남성들이 달려와 여씨를 막고 큰 형인 장창린의 명령으로 장세린은 여씨를 후당에 가둔 후 이번에는 흙을 가져다 아예 벽을 막는다.[15]

---

15) ᄒᆞᆨ시 익익 대로ᄒᆞ여 졍셩 엄호ᄒᆞ고 녀시를 모라 후당의 너코 직희엿던 비ᄌᆞ를 다 즙아ᄂᆡ여 다 오십장식 듕타ᄒᆞ여 비쥬(婢主)를 ᄒᆞᆫ가지로 가도ᄆᆡ 흙을 가져 벽을 막고(권167)

후당에 갇힌 여씨는 팔,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상한 상태에서 친정에 돌아가고자 한 것이 허사가 되자 슬프고 분해 다시 장씨 집안에 대한 욕을 낭자하게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울다가 기진맥진해 쓰러져 인사불성의 지경에 이른다. 이후로도 식음을 전폐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자 곁을 지키던 시비가 겁이나 장부에 고하고, 꾀병으로 치부하면서 여씨의 단명(短命)이 자신이 복이라 하는 장세린과 달리, 시아버지 장헌은 여씨가 죽을까좌 두려워 "브졀업시 녀시부를 닝지(冷地)의 가도아 병이 나도록 ᄒᆞ니"라고 장세린을 꾸짖으며 여씨를 처소로 돌려보내 조리하게 한다.

> 상서 곤계 슈명ᄒᆞ고 정당의 드러와 명을 녀시긔 젼ᄒᆞ니 녀시 혼혼 불셩ᄒᆞ여 아모란 줄 모로ᄂᆞᆫ지라. 이윽고 **상셰 쇼교를 보ᄂᆡ여 시녜 븟드러 교ᄌᆞ의 올녀 침소로 도라오니 모든 ᄎᆞ환(叉鬟) 복쳡(僕妾)이 당즁을 슈리ᄒᆞ고 침구를 ᄀᆞᆺ초고 쥬모를 븟드러 안휴ᄒᆞ고 보드ᄅᆞ온 미쥭(糜粥)으로 넌ᄒᆞ여 나오니 쇼졔 아모란 줄 모로고 음식의 닙의 다ᄃᆞᄅᆞᄆᆡ 그릇시 븨도록 먹을 ᄲᅳᆫ이오 하당 누실과 고루(高樓) 거각(巨閣)을 분변치 못ᄒᆞᄂᆞᆫ 듯 ᄒᆞᆫ지라**. 졍부인이 쥬 양이인을 거ᄂᆞ려 친히 나아가 ᄒᆞᆫ번 보ᄆᆡ 불승경악ᄒᆞ여 심니의 불힝ᄒᆞ미 가이 업ᄉᆞ니 쥭물(粥物)과 ᄎᆞ탕(茶湯)을 넌ᄒᆞ여 닙의 맛도록 ᄒᆞ고 상셰 창외의셔 부인긔 므러 증셰를 드ᄅᆞᄆᆡ 불힝ᄒᆞ믈 니긔지 못ᄒᆞᆯ지라 친히 약을 다ᄉᆞ려 쓰라 ᄒᆞ고 일변 엄졍의 고ᄒᆞ여 녀츄밀게 통ᄒᆞᆯ시 **녀시 비록 혼혼 즁이나 화당 난실의 나위(羅幃)를 ᄀᆞ즉이 ᄒᆞ여 상상의 비단 니불을 ᄀᆞᆺ초아 몸을 편히 ᄒᆞ고 ᄉᆞ오일 보ᄆᆡ 진찬(珍饌)의 ᄆᆞᄅᆞᆫ 장위를 늣츄ᄂᆞᆫ지라 ᄆᆞᄋᆞᆷ이 또ᄒᆞᆫ 깃븐 ᄃᆞᆺᄒᆞ여 졍신이 도라오니**(권167)

장세린 형제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장헌의 명대로 누실에 있는 여씨를 데리러 가는데, 이때 여씨는 인사불성 상태에 있다가 교자로 침소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곳이 누실인지 자기 처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정월염의 극진한 정성 아래 편안한 일상의 잠자리와 좋은 음식을 갖춰 먹게 되자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된다. 여씨는 정신을 차리자 형님

인 정월염의 간호에 감사하며 마음을 털어놓는데, 그때도 남편 장세린이 혼인날부터 박대한 것에 대해 신세한탄을 하면서 장씨 일가를 원망한다.

여씨의 아버지 여원흥은 딸이 누실에 갇혀 고초를 겪는 일로 인해 장세린에 대해 이를 갈며 기회를 엿보다가 여씨가 몹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장씨 부중에 간다.

> 슌히 댱공의 말로 조ᄎᆞ 흔가지로 녀ᄋᆞ의 침소의 드러가 볼ᄉᆡ 녀시 이ᄯᅢ 잠간 정신을 출혓ᄂᆞᆫ지라 존구와 부공을 만나ᄆᆡ 반기미 넘ᄲᅴ나 능히 몸을 운동치 못ᄒᆞᄂᆞᆫ지라 다만 츄밀의 ᄉᆞᄆᆡ를 븟들고 읍쳬 여우ᄒᆞ니 그 거동이 흉참ᄒᆞ미 가히 비홀 곳 업ᄂᆞᆫ지라 **검고 더러온 얼골이 슈쳑ᄒᆞ므로 조ᄎᆞ 더옥 흉괴ᄒᆞ고 프른ᄃᆡ 누월 소셰를 폐ᄒᆞ여 더러온 진ᄋᆡ ᄀᆞ득이 베여 얽은 굼글 메엿고 ᄲᅡᆨ ᄀᆞᆺ튼 머리 얼골을 덥허시니 흉악ᄒᆞᆫ 거동이 비록 ᄆᆡ양 보든 ᄉᆞᄅᆞᆷ이라도 ᄉᆡ로이 경악ᄒᆞ믈 니긔지 못ᄒᆞᆯ ᄇᆡ라** 댱공의 졍신 젹으므로ᄡᅥ 이를 보ᄆᆡ 엇지 놀나지 아니리오 졈즉이 물너셔 거ᄅᆞᆷ을 옴기지 아니코 안ᄉᆡᆨ이 변ᄒᆞ니 녀공이 일변 무안코 노ᄒᆞ여 녀ᄋᆞ의 거동을 보ᄆᆡ 부녀 텬셩은 현우 션악 간의 업 ᄂᆞ니 참연 ᄋᆡ석ᄒᆞ믈 니긔지 못ᄒᆞ여 머리를 ᄲᆞᆯ고 손을 즙아 상연 출쳬ᄒᆞ니 녀시 눈물을 흘니고 우러 왈, **쇼녜 당가로 더브러 무ᄉᆞᆷ 원쉬완ᄃᆡ 이십이 못ᄒᆞ여 몸을 맛게 되엿ᄂᆞ니잇고 ᄉᆞ싱지간의 원쉬 되여시니 이의 머물 니 업ᄂᆞ니 쇼녀를 거ᄂᆞ려 가샤 모친을 보고 죽게 ᄒᆞ쇼셔**.....**셜파의 분긔 하ᄂᆞᆯ을 ᄭᆡ칠 ᄃᆞᆺ ᄒᆞ니 하리를 명ᄒᆞ여 교부를 ᄀᆞᆺ초아 친히 녀ᄋᆞ를 교즁의 너흐ᄆᆡ 댱공 부ᄌᆞ를 작별ᄒᆞ미 업시 앙앙이 도라가니** 그 거동이 셩닌 일희와 모진 독ᄉᆞ ᄀᆞᆺᄐᆞᆫ 니ᄅᆞ지 말고 무인지경 ᄀᆞᆺ치 ᄂᆡ외로 왕ᄂᆡᄒᆞ여 도라가는 모양이 댱부의 ᄉᆞᄅᆞᆷ 업ᄉᆞᆷ ᄀᆞᆺ치 ᄒᆞ니(권167)

여원흥은 딸의 더럽고 흉악한 몰골을 보고 경악하면서[16], 여씨가 울면서 집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자 매우 화가 나 여씨를 데리고 작별인사도 없이 가버린다. 친정에 돌아온 지 3일 후 여씨는 부모에게 장가의 원

16) 여러 달 세수도 못해 얼굴에 덕지덕지 때가 묻은 데다 쑥대머리를 하고 있는 여씨의 모습은 그녀가 초실에서 지낸 고난의 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수를 갚아달라고 하면서 앵혈을 보이고 그간의 한을 이야기하며 서러워하다가 죽는다.

이후 장씨 집안의 장자 장창린이 장씨 선산에 여씨 영구(靈柩)를 안장하는 과정에서, 여씨는 원귀(寃鬼)가 되어 귀곡성을 내어 주위를 두렵게 하고, "자신은 장부 사람이 아니므로 장부 선산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자기 원수인 장헌을 죽이고 장세린과 정성염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관이 이리저리 크게 흔들린다.[17] 정월염이 부적을 관에 붙여 겨우 이를 잠재우고, 장창린이 관 앞으로 나아가 죽은 여씨를 위로하며 달래자 관이 가볍게 움직여 상여에 올릴 수 있게 되어 무사히 장례를 치른다.[18]

2.2. 친정에 갇히기

2.2.1. 소교완

소교완은 정잠의 후처로 정씨 부중에 들어와 쌍둥이 아들 정인중과 정인웅을 낳았으나, 자신이 낳은 아들을 계후로 삼지 않고 양자로 들인 정인성을 계후로 삼겠다는 남편의 결정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나 이후

17)관이 믄득 니러셔며 상탁(床卓) 긔명(器皿)과 견녀(肩輿)를 ᄎᆞ부리니 그 소릭 텬디 진동ᄒᆞ여 은은이 ᄀᆞᆯ오ᄃᆡ, 나ᄂᆞᆫ 녀시의 만금 교옥이라 댱가와 므ᄉᆞᆷ 원쉬 이셔 맛ᄎᆞᆷ닉 날을 죽여시니 내 집 션산의 빅골이 되려 ᄒᆞ더니 삼싱 원슈 댱가의 고홍 홍즁의 ᄉᆞ어다가 무드려 ᄒᆞ니 내 엇지 실니여 가리오 댱헌 늙은 흉물아 네 날로 원쉬 되엿ᄂᆞᆫ지라 내 엇지 져를 고이 두어 살게 ᄒᆞ리오 셕가(釋迦) 졔존(諸尊)의 쳥쵹(請囑)ᄒᆞ고 옥황(玉皇)긔 원소(原訴)ᄒᆞ여 념왕긔 송ᄉᆞᄒᆞ여 텬나지망의 밀됴(密詔)ᄒᆞ여 셰린 탕ᄌᆞ와 졍가 요녀를 너흐러 흑살 귀치를 발ᄒᆞ여 잡아다가 내 지원(至怨)을 셜한(雪恨)ᄒᆞ리라 내 오날 네 집 션산의 가지 아니리니 네 날을 엇지 홀다(권170)

18) 여씨는 유일하게 감금되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인데, 이는 여씨의 투기와 시부모에 대한 패륜적 행위가 가부장제 사회 하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이지하는 <완월회맹연>의 서술자가 폭력적 여성인물을 통해 당대 유교 윤리를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여성인물들의 처리방식에서만큼은 궁극적으로 가부장제에 입각한 지배이념을 수긍하는 서술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문제의식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39쪽 참조.

로부터 정인성은 물론 며느리 이자염을 없애기 위해 수하 시비인 녹빙, 계월과 더불어 갖은 흉계를 꾸민다. 점점 악독한 방법으로 정인성 부부에게 해를 끼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자염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실이 친정에 알려지게 되자, 친정 부모의 귀녕 명에 의해 친정에 불려오게 된다.

친정인 소부에서는 그녀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외지에서 돌아온 소희량은 아내인 주태부인이 오늘 딸 소교완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며 후당 추란정에 사약 등을 준비했음을 고하자 서질 소응에게 집안의 모든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라고 명하고는 부인과 네 아들, 소교완 모자를 데리고 추란정으로 향한다.[19]

추란정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엄금한 후 국문(鞫問) 자리를 마련한 소희량은 소교완을 꿇어앉힌 후 그녀의 죄를 낱낱이 추궁하며 녹빙과 계월의 초사(招辭)를 보여준 후 딸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 한다.[20] 초사로 죄

19) 뎡히 부ᄌᆞ의 ᄂᆡ림(來臨)ᄒᆞ시믈 기다려 ᄒᆞᆫ가디로 쳐치코져 ᄒᆞᄂᆞ니 **임의 후당(後堂) 벽쳐(辟處)의 ᄉᆞ약(賜藥) 범물(凡物)을 ᄃᆡ후ᄒᆞ여시니 츄란졍의 좌ᄅᆞᆯ 옴기쇼셔**. 노공이 쳥파의 일셩(一聲)을 기리 음아(喑啞)ᄒᆞ며 광미ᄅᆞᆯ 괴도이 ᄲᅥᆼ긔여 ᄀᆞᆯ오ᄃᆡ, 불초 요녀의 간포 극악디ᄉᆞᄅᆞᆯ ᄒᆞᆫ번 알므로브터 디우금일(至于今日)히 참분 통히ᄒᆞ미 심장의 병을 시러시니 비록 할ᄌᆞ인졍(割慈人情)ᄒᆞ야 대의 멸친을 긔약ᄒᆞ나 기실은 복(僕)이 박덕ᄒᆞ며 무상(無狀)ᄒᆞ야 ᄌᆞ식을 그릇나하 허물을 알오ᄃᆡ 오히려 ᄌᆞ벌(自罰) ᄌᆞ죄(自罪)ᄅᆞᆯ 아니 ᄒᆞ거든 부인이 엇디 홀노 ᄀᆞᄅᆞ치디 못ᄒᆞ믈 인과ᄌᆞ죄(因果自罪)ᄒᆞ시리오. 쳥컨ᄃᆡ 좌셕의 안위ᄒᆞ쇼셔 말ᄉᆞᆷ을 맛ᄎᆞ믜 **도라 졔손을 보와 유튱(幼沖) 손ᄋᆞ와 비록 관ᄌᆡ라도 심히 듕약ᄒᆞᆫ 뉴ᄅᆞᆯ 다 밧그로 물너가라 ᄌᆡ촉ᄒᆞ야 ᄂᆡ여보ᄂᆡ고 셔딜(庶姪) 소응을 불너 엄호 왈, 네 모로미 듕복(衆僕)으로 젼후 좌우의 문호(門戶)ᄅᆞᆯ 각별이 엄쇄(嚴鎖)ᄒᆞ고 인ᄒᆞ여 위립ᄒᆞ야 비록 존ᄌᆞ(尊者)와 귀인이라도 나의 명이 업시드리미 이시면 혼ᄌᆞᄅᆞᆯ 버혀 위령(違令)ᄒᆞᆫ 죄ᄅᆞᆯ 뎡히 ᄒᆞ리니 ᄲᆞᆯ니 즁복의 젼녕(傳令)ᄒᆞ야 명심 거힝ᄒᆞ라.** 소응이 송연이 봉녕(奉令) 쥰교(遵敎)ᄒᆞ야 ᄒᆞᆫ **시긔 ᄉᆞ이의 훤화(喧譁)ᄒᆞᆫ 문희(門戶) 변ᄒᆞ야 엄업 슉슉히 대댱군의 딘문(陣門)을 습양(習樣)ᄒᆞ야 ᄉᆞ문을 견슈(堅守)ᄒᆞ고 위립 졔졔ᄒᆞ야 비되(飛鳥)라도 왕ᄂᆡ키 어렵더라.** 노공이 드ᄃᆡ여 ᄉᆞ부와 상 등 이녀ᄅᆞᆯ 다 뎡당의 머므러 감히 오디 못ᄒᆞ게 ᄒᆞ고 오딕 부인으로 더브러 ᄉᆞᄌᆞ와 닌듕의 모ᄌᆞᄅᆞᆯ 거ᄂᆞ려 츄란졍으로 향ᄒᆞ니(권96)

20) 츄란졍의 밋쳐ᄂᆞᆫ **노공이 부인으로 난함(欄檻) 알패 좌ᄅᆞᆯ 뎡ᄒᆞ고 좌우 등문을 엄쇄(嚴鎖)ᄒᆞ야 계녀(季女) 일인 밧긔는 다른 녀부ᄅᆞᆯ 드리디 아니 ᄒᆞ고 당하의 근실ᄒᆞᆫ**

상이 드러났음에도 소교완이 변명을 하자 독약 다리기를 재촉하는데, 약 탕기가 깨져 독약 준비가 더뎌지는 상황에서 며느리 이자염이 보낸 혈서가 도착하고, 자해한 소교완을 구호하는 정인성을 보고 감동하여, 소교완에게 이제부터 패악한 일을 벌이지 말고 개과천선하여 자식들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잘 지내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인성 부부의 지극한 효심이 더욱 드러나게 됐음을 못마땅하게 여긴 소교완이 자신의 누명을 한하며 발악하자, 소희량은 딸의 모습에 경악하여 딸의 손발을 묶고 입을 수건으로 막아 동원 누옥(陋屋)에 가두라 명한다.[21] 그러자 소교완은 자신의 불효를 죽음으로써 대신하겠다며 칼로 자해한다.

복부(僕夫) 삼ᄉᆞ인과 영니ᄒᆞᆫ 창두(蒼頭) 슈인을 두고 다른 시위(侍衛)를 드리디 아니 ᄒᆞ니 원ᄂᆡ 쥬부인이 츄란졍 하의 황폐ᄒᆞᆫ 일간 비실(鄙室)을 셔ᄅᆞ져 두ᄃᆡ 우화ᄒᆞᆫ 복마(卜馬)의 ᄉᆡ초를 만지(滿載)ᄒᆞ야 효신(曉晨)으로브터 황혼의 니ᄅᆞ도록 방을 쓸히고 쳔초(千草) 만목(萬木)을 상국의 ᄌᆡ로와 일빅 ᄉᆡ쏭의 독ᄒᆞᆫ 거슬 모화 약을 달히니 츄란졍은 고활(高闊)ᄒᆞᆫ 뎐각이로ᄃᆡ 비실이 알플 당ᄒᆞ야 삼ᄉᆞ간 동안이므로 옹울ᄒᆞᆫ 화긔와 독약의 모진 ᄂᆡ음이 구름 ᄀᆞᆺ치 못고 안기 ᄀᆞᆺ치 픠여 연염(煙焰)이 눈을 쓰기 어렵고 독취 코흘 거ᄉᆞ리니 상셰 부뫼 더욱 상ᄒᆞ실가 초박(焦迫)ᄒᆞ야 좌우로 션ᄌᆞ(扇子)를 드러 연염을 헤칠ᄲᅮᆫ이오 츄란졍 듕문 밧긔셔 상 등 이부인은 창황 비도ᄒᆞᆯ ᄉᆞᄅᆞᆷ이로ᄃᆡ 노공이 딘노ᄒᆞ믈 인ᄒᆞ야 감히 호흡도 놉히디 못ᄒᆞ니 합실(閤室)이 고요ᄒᆞ야 잠간도 짓궤며 드레미 업더라. **이에 노공이 좌우 시위를 엄호(嚴號)ᄒᆞ야 쳔만ᄃᆡ의 잇디 아닌 요악(妖惡) 간녀(奸女)를 잡아 계졍(階庭)의 ᄭᅮᆯ니라 ᄒᆞ니 부인이 즉시 봉관(鳳冠) 화리(華履)를 탈ᄒᆞ야 복계ᄃᆡ명(伏稽待命)ᄒᆞᆯᄉᆡ .....노공이 임의 ᄌᆞ이를 믄코 경을 버혀 그 죄를 다ᄉᆞ려 살명(殺命)을 더ᄃᆡ디 말고져 ᄒᆞ니 엇디 텬뉸디ᄌᆞ(天倫之慈)를 도로혀미 이시리오. 학발(鶴髮)이 도슈(倒垂)ᄒᆞ고 봉안이 두렷ᄒᆞ야 녀셩(厲聲) 슈죄 왈(권97)**

21) 니부인 디셩 대효를 감복ᄒᆞ여 살ᄌᆞ디명(殺子之名)을 거두어 ᄶᅥᆨ 디나디 못ᄒᆞ여 도로 죽이려 ᄒᆞ믄 니+부인을 쇽이고 그 디셩 대덕을 져ᄇᆞ리미 금슈의 ᄆᆞᄋᆞᆷ일ᄉᆡ 네 발악의 내 죽을디언졍 너를 다시 죽으라 아니 ᄒᆞ거ᄂᆞᆯ 홀연 죽기로뼈 결ᄒᆞ롸 ᄒᆞ야 한악(悍惡)을 나ᄂᆞᆫ대로 ᄒᆞ니 노뷔 슈혼녈(雖昏劣)이이 통히ᄒᆞ믈 엇디 춤고 견ᄃᆡ리오. **너의 ᄉᆞ디를 좀으고 넙을 막아 계계심쳐(繫繫深處)ᄒᆞ리오. 셜파의 좌우 시위를 엄호ᄒᆞ여 요녀의 슈족(手足)을 좀으고 넙의 슈건을 막아 츼여의 시러 동원 누옥의 가도라 ᄒᆞ니 소부인이 비록 상셔를 기ᄃᆞ려 보고 죽으려 ᄒᆞ던 ᄇᆡ나 슈족을 엄쇄(嚴鎖)ᄒᆞ고 몸이 누옥의 가도이면** 완연이 관계 늘부ᄒᆞᆫ 극죄즁슈(極罪重囚) ᄀᆞᆺ트여 잠간 사이라도 쳘박ᄒᆞ믈 더으고 손 쓰기를 임의로 못ᄒᆞ여 죽으미 더딜가 념녀ᄒᆞ믜 즘시ㄹ·ㄹ 디연ᄒᆞᆯ 의ᄉᆡᆨ 업셔 부공의 말ᄉᆞᆷ을 ᄃᆡᄒᆞ야 불효를 니긔여 ᄲᅡᆨᄒᆞᆯ 곳이 업ᄉᆞ므로뼈 오딕 목숨을 죽여 죄를 쇽ᄒᆞ믈 일ᄏᆞ라(권98)

소희량은 정인성을 생각해 그가 누옥이 아닌 추란정에서 소교완을 구호하도록 한다.[22] 그러나 정인성은 자신은 추란정이 편하지만 소교완이 깨어나면 그곳을 불편해 할 것이므로 소당(小堂)에서 모친을 구호하겠다 말한다. 소교완은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하여 죽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거적 하나만 가지고 벽실(僻室)로 들어가 버린다. 정인성과 정인웅은 벽실 밖에 거적을 깔고 꿇어앉아 모친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데, 이날 사나운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려 벽실에 물이 가득 차 소교완이 위험에 처하자, 정인성은 얼른 벽실 안으로 들어가 소교완을 안아 비가 덜 새는 곳으로 옮기려다 뇌우로 인해 상량목(上樑木)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급히 소교완을 안고 뛰어나와 추란정으로 향한다.

그날부터 추란정에서 소교완과 정인성, 정인웅 형제가 지내게 되는데, 녹빙과 계월의 직초(直招) 대신 정인성이 이들을 다시 심문하여 소교완의 죄악이 감춰진 초사(招辭)를 받아내 정부에 보내자, 정부의 대모(大母)인 서태부인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소교완에 대해 걱정하는 일가의 마음을 헤아려 소교완을 용서하고 정씨 가문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여 소교완은 정부로 복귀하게 된다.

이후 소교완은 이자염이 비범한 아들을 순산하자 시비를 시켜 그 아기를 강에 버리고 대신 길가에 버려진 아기를 데려와 이자염이 낳은 신생아라며 식구들을 속이는 등 악행을 자행한다. 교지 출정에서 돌아온 정잠은 그 동안의 정부 일기를 통해 소교완의 악행을 모두 알게 되고, 어머니 서태부인께 소교완을 죽여 처벌하기를 청한다. 그러나 서태부인은 정인성과 정인웅에게 어미를 잃은 아픔을 두 번 주지 말자며 소교완을 후당에 감금하자고 하지만, 정잠은 고집을 꺾지 않고 소교완을 죽이려 하다가 정인성의 편지에 감동해 소교완을 친정에 보내기로 한다.

소부로 떠나던 소교완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비단수건으

22) 추마 목지의 ᄆᆞᄋᆞᆷ을 병드리고 몸을 상히오믈 더으디 못ᄒᆞ야 녀ᄋᆞ를 동원 슈계ᄒᆞᄂᆞᆫ 명을 거두어 츄란정의셔 구호ᄒᆞ믈 니ᄅᆞ니 뇌졍이 일시의 거두고 양츈이 셜듕의 도라혀미라.(권98)

로 목을 묶어 자살을 시도하여 거의 숨이 끊어진 채 소부에 도착하는데, 이때 소부에 이른 정잠의 처방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깨어난 소교완은 입을 다물고 음식을 거부하며 “자신은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이고 친정에서 버린 자식이므로 마음 편히 죽게 내버려달라”고 한다. 소희량은 소교완이 다시 경악스럽게 구는 것을 알고 추란정에 불러 죄과를 하나하나 질책한 후 소당에 가두고 문을 엄쇄(嚴鎖)하여 식사 또한 구멍으로 받아먹게 하고, 자결하지 못하도록 시녀를 지키게 하며, 창두를 시켜 가시덩굴을 하늘까지 올려 왕래를 못하게 한다.[23]

소교완은 이때부터 거적자리에 띠 베개로 소당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사를 잊은 듯하여 거의 시신에 가까운 형상이 되었으며,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오빠인 소운이 아버지의 눈을 피해 가시덩굴을 헤치고 들어가 회유하지만 소교완은 얼굴도 대하지 않으려 한다.[24] 또 변방에 나간 정인성과 정인웅이 소운에게 소교완을 누실에서 편안한 거처로 옮겨달라고 간청한 편지를 보내 소희량이 이를 허락하지만, 소교완은 자신은 구가(舅家)의 득죄한 죄인이라며 그대로 누실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에 엄노한 소희량은 본인이 죄인을 자처하니 놔두라고 하면서 가시덩굴을 더욱 높이 올려 집안사람이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죄인으로 누실을 자처하면서도 소교완은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기보다는 정인성을 죽일 생각으로만 가득하여 이 때문에 병세가 깊어지

---

23) **ᄉᆞ죄 일단의 더으믈 수루히 ᄎᆡᆨᄒᆞ고 이에 소당의 가도고 문호ᄅᆞᆯ 엄쇄(嚴鎖)ᄒᆞ여 됴셕 시식(時食)도 굼그로 바다드리게 ᄒᆞ되 근신ᄒᆞᆫ 냥낭 슈인으로 ᄒᆞ여곰 직희어 그 ᄌᆞ결ᄒᆞᄂᆞᆫ 환을 방어케 ᄒᆞᄆᆡ 이의 창두 댱확(壯獲)을 호령ᄒᆞ여 형극(荊棘)을 모화 하ᄂᆞᆯ의 ᄃᆞ케 ᄲᅡ하 비로소 왕ᄂᆡ치 못ᄒᆞ게 ᄒᆞ니(권147)**

24) **부인이 엄노ᄅᆞᆯ 닙어 일언을 브ᄃᆡ(不對)ᄒᆞ고 머리ᄅᆞᆯ 슉여 방즁의 들ᄆᆡ 거젹 ᄌᆞ리와 쒸 벼기ᄅᆞᆯ 깃초아 죄인의 거쳐ᄅᆞᆯ 일우ᄆᆡ ᄃᆞ듸여 머리ᄅᆞᆯ 벼기의 더져 시식이 니ᄅᆞ나 눈 드러 보미 업고 즘연이 셰ᄉᆞᄅᆞᆯ 니즌 ᄃᆞᆺ ᄒᆞ니 완연이 시신이 빗겻ᄂᆞᆫ지라.** 양낭 츄월과 홍년이 븟들고 간ᄒᆞ되 조곰도 요동ᄒᆞ미 업ᄉᆞ니 츄월 등이 불승우황ᄒᆞ여 됴셕 식반 가져오ᄂᆞᆫ 시비ᄅᆞᆯ ᄃᆡᄒᆞ여 이 소유ᄅᆞᆯ 닐너 샹셔 노야긔 고ᄒᆞ라 ᄒᆞ니 ᄎᆞᄎᆞ 젼ᄒᆞ여 샹셰 드ᄅᆞ미 된지라. 싀로이 근심ᄒᆞ고 슬허 ᄯᅴᄅᆞᆯ 타 잠간 형극을 헷치고 드러가 만단 유셰 히유ᄒᆞ나 부인이 잠간도 요동ᄒᆞ미 거거의 얼골을 ᄃᆡ치 아니니(권147)

고, 변방에서 돌아온 정인성 형제가 소교완을 근심하는 마음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까지 걸리자, 정잠은 마지못해 소희량에게 소교완을 돌려보내달라고 청하는 편지를 쓰고, 정인성의 부축을 받으며 소교완은 다시 정부에 복귀한다.

2.2.2. 양일아

양일아는 양순의 딸이지만, 외할머니인 주태부인의 술수로 부마 한제선의 수양딸이 되어 12년간 살아간다. 외할머니를 따라 체찰사 군대가 환경(還京)하는 모습을 보다가 정인성에게 반해 상사병에 걸린다. 주태부인은 조카인 소교완과 양일아가 정인성의 첩이 되게끔 여러 가지 흉계를 꾸며 결국 그의 첩이 되게 하지만, 정인성은 양일아와 동침하지 않고, 첫째 부인 이자염과 다른 첩인 한난소의 처소만 번갈아 왕래한다. 이에 양일아는 이자염의 아들 정몽창을 유인하여 난간에서 밀어뜨리기도 하고, 한난소의 침소에 잠입해 그녀를 쇠몽둥이로 난타하기도 하며, 시어머니 소교완에게 두 사람을 참소하기도 한다.

양주자사로 있던 양일아의 아버지 양순은 양일아가 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알게 되고, 그간 양일아가 정부에서 벌인 음란하고 간악한 행실에 대해 알게 되자 비분강개하여 잠시 경사의 양씨 부중으로 돌아와 정씨 부중에 편지를 보내 양일아의 귀녕(歸寧)을 청한다.

양순은 친정에 온 양일아를 계단 아래에 꿇어앉게 하고는, 관형(官刑)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부녀지정으로 집 안에서 독약으로 죽이겠다고 한다. 이후 그간의 악행을 차례로 나열하며 꾸짖자 양일아는 죄명이 다 드러나 어쩔할 수 없음을 알고 용서만을 구한다. 그러나 엄준한 양순은 주머니에서 직접 약을 꺼내 갈은 뒤 입에 부으라고 명하는데, 양일아가 약 그릇을 쳐버리자 화가나 큰 소리로 꾸짖으며 직접 입에 넣으려 한다. 이에 양일아는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고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 손에 살아온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살려주면 회과(悔過)하겠다고 애원하지만, 양

순은 정인성 같은 대군자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먹이려 하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손수 양일아의 입에 독약을 넣는다.

양시 귀로 가엄(家嚴)의 슈죄ᄒᆞᄂᆞᆫ 말을 드ᄅᆞ며 눈으로 글 ᄇᆞᆫ 거ᄉᆞᆯ 보ᄆᆡ 이곳 ᄌᆞ가의 죄목을 초ᄒᆞ여시니 ᄌᆞᄌᆞ 항항(行行)이 명빅ᄒᆞ여 일호 희미치 아니ᄒᆞ니 이ᄅᆞᆯ 보ᄆᆡ 엇지 발병ᄒᆞᆯ 의ᄉᆡ 이시리오 츅연이 머리ᄅᆞᆯ 슉여 감히 닙을 여지 못ᄒᆞ고 ᄋᆡ뤼(哀淚) 방방ᄒᆞ여 일명을 샤ᄒᆞ시믈 ᄋᆡ걸ᄒᆞ니 공의 노긔 녈화(熱火) 깃ᄐᆞ여 입을 막아 말을 못ᄒᆞ게 ᄒᆞ고 **낭즁으로조ᄎᆞ ᄒᆞᆫ낫 단약을 ᄂᆡ여 친히 가라 좌우ᄅᆞᆯ 호령ᄒᆞ여 닙으로 부으라 ᄒᆞ니 쇼졔 ᄒᆞᆯ일업셔 손을 드러 약그ᄅᆞᆺᄉᆞᆯ 쳐ᄇᆞ리니 공이 대로ᄒᆞ여 녀셩 대즐ᄒᆞ고 남은 약환을 다시 타 친히 손의 들고 계졍의 ᄂᆞ려 녀아의 닙의 붓고져 ᄒᆞᄆᆡ...중략... 불초녀의 죄악이 진실로 ᄉᆞᄅᆞᆷ즉 ᄒᆞ미 업ᄉᆞ나 션비의 ᄭᅵ치신 골육이 불초녀 일인이믈 ᄉᆡᆼ각ᄒᆞ샤 일누ᄅᆞᆯ ᄭᅮ이시면 ᄌᆞ금 이후로 회과(悔過) ᄌᆞ칙(自責)ᄒᆞ여 다시 죄ᄅᆞᆯ 범치 아니리이다.** 공이 졍셩 즐지 왈, 불초녜 엇지 교언(巧言) 낭셜(浪說)노 아비ᄅᆞᆯ 농낙코ᄌᆞ ᄒᆞᄂᆞ뇨 내 비록 남의셔 낫지 못ᄒᆞ나 일단 결개(潔介)ᄒᆞᆫ ᄯᅳᆺ이 강한의 탁ᄒᆞ고 츄양의 폭ᄒᆞ고져 ᄒᆞᄂᆞᆫ ᄇᆡ오 녀모의 인션 ᄌᆞ혜ᄒᆞ므로 ᄌᆞ식을 두ᄆᆡ 너 깃ᄐᆞᆫ 음샤 한악(悍惡)ᄒᆞᆫ 요인이믈 불승통히ᄒᆞᄂᆞ니 엇지 그 깃친 바 일골육을 가ᄋᆡᄒᆞ리오 **내 ᄎᆞ마 너 깃ᄐᆞᆫ 거ᄉᆞᆯ ᄌᆞ식이라 ᄒᆞ여 ᄉᆞᆯ와두고 대군ᄌᆞ 현셩의 무리ᄅᆞᆯ ᄃᆡᄒᆞ지 못ᄒᆞᆯ 거시오 명ᄋᆞᄅᆞᆯ 죽이고 엄연이 현보의 빈관을 쳐ᄒᆞ지 못ᄒᆞ리니 ᄲᆞᆯ니 약을 먹고 도라가 아ᄇᆡᄅᆞᆯ 한치 말나. 언흘(言訖)의 약 그ᄅᆞᆺᄉᆞᆯ 드러 입의 다하ᄆᆡ 쇼졔 옥슈로 잉도 깃ᄐᆞᆫ 닙을 ᄀᆞ리오고 공의 가슴의 업ᄃᆡ여 불승엄읍(不勝掩泣)ᄒᆞ니** 공이 비록 강위ᄒᆞ나 텬셩지졍은 현우(賢愚) 션악 간의 다ᄅᆞᆷ이 업ᄉᆞ니 엇지 홀로 양공이 이 ᄲᅩᆯ의게 박ᄒᆞ리오마ᄂᆞᆫ ᄒᆞᆫ번 ᄯᅳᆺ을 졍ᄒᆞᄆᆡ 비록 쳔인이 히유(解諭)ᄒᆞ고 만인이 다ᄅᆡ나 고치지 아닛ᄂᆞᆫ 셩품이라 쇽 ᄆᆞᄋᆞᆷ의 비괄ᄒᆞ미 ᄀᆞ득ᄒᆞ나 ᄎᆞ마 다시 ᄭᅮ짓지 못ᄒᆞ고 히음업시 그 귀 밋출 어ᄅᆞ만져 ᄀᆞᆯ오ᄃᆡ, 내 엇지 이ᄅᆞᆯ 즐겨 ᄒᆞᄂᆞᆫ ᄇᆡ리오 네 만일 ᄒᆞᆫ ᄆᆞᄋᆞᆷ 먹기ᄅᆞᆯ 쳥졍 결개이ᄒᆞᆯ진ᄃᆡ 네 아비 므ᄉᆞ 일 이깃ᄐᆞᆫ 잔인 혹독ᄒᆞ믈 힝ᄒᆞ리오마ᄂᆞᆫ ᄉᆞ셰 너ᄅᆞᆯ ᄉᆞᆯ와두지 못ᄒᆞ리니 임의 혜아리미 오란지라 오날날 ᄯᅳᆺ을 곳칠 ᄇᆡ 아니니 어ᄌᆞ러온 말ᄉᆞᆷ과 보기 슬

흔 거동으로 아븨 뜻을 허트ᄅᆞ지 말나 내 다만 구원(九原) 타일를 님ᄒᆞ여 녀모를 ᄃᆡᄒᆞᄂᆞᆫ 날 ᄂᆞᆺ치 업ᄉᆞ믈 한ᄒᆞ노라. **일변 니ᄅᆞ며 위력으로 닙의 약을 브으니 쇼졔 쳔만 발악ᄒᆞ고 닙의 약을 먹음어 쌈고 숨키지 아니 ᄒᆞ니 공이 대로ᄒᆞ여 손조 닙을 어긔오고 약쥥을 드러 부으ᄆᆡ 이윽ᄒᆞ여 졈졈 면식(面色)이 변ᄒᆞ고 아관이 긴급ᄒᆞ니 공이 비로소 양낭 복쳡을 명ᄒᆞ여 붓드러 방의 드려 명이 진ᄒᆞ거든 알외라 ᄒᆞ고** (권140)

그런데 이때 양순의 행동을 짐작한 정잠이 양일아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보낸 편지가 도착하고, 이에 감복한 양순은 양일아에게 급히 해독약을 먹인다. 양일아가 정신을 차리자 양순 등은 기뻐하며, 답장을 써서 창두에게 준 뒤 정잠의 편지를 보여준다. 이에 양일아는 자신의 생사를 걱정하는 정잠의 마음을 깨닫고는 감격하며 편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린다. 양순은 정삼에게 딸 양일아를 데리고 가 부도(婦道)를 가르쳐 보내겠다고 하면서 정씨 부중에 편지 한 통을 전하게 하고, 미처 정부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양일아를 데리고 양주로 내려간다.

양주에 도착한 양순은 양일아를 후원의 한 칸 소실에 넣고 두고 개심수덕(改心修德)해야만 정씨 부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여계(女戒) 3권을 주며 주야로 송독하라고 명한다. 또한 큰 자물쇠를 가져다가 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자신이 가져 다른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하며, 가시덩굴을 높이 올려 새들도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 양순은 양일아의 화려한 옷 또한 청의(靑衣)로 바꿔 입히고 거적자리와 풀 베개에서 자도록 하며 식사를 보내되 좋은 음식은 보내지 않는다.

ᄉᆞ지 관환을 명ᄒᆞ여 후원의 일간 쇼실을 셔ᄅᆞ져 거젹ᄌᆞ리와 풀벼개를 ᄀᆞᆺ초라 ᄒᆞ고 도라 녀ᄋᆞᄃᆞ러 왈, 너의 쇼힝이 죽으미 맛당ᄒᆞ고 ᄉᆞᆯ미 불가ᄒᆞᆯᄉᆡ ᄉᆡᆯ니 죽여 현보의게 각별 샤례코져 ᄒᆞ더니 청계형의 지인 지덕을 감동ᄒᆞ여 너의 일명을 ᄭᅮ이나 언연이 고당(高堂) 화루(華樓)의 금의(錦衣) 옥식(玉食)을 무고ᄒᆞᆷ ᄀᆞᆺ지 못ᄒᆞᆯ ᄇᆡ리오 내 임의 정가의 도라보ᄂᆡ지 아니키를 결단ᄒᆞᄆᆡ 거취를

취품치 아니코 도라온 ᄇᆡ라 만일 졍시의 며ᄂᆞ리로 ᄒᆞᆯ진ᄃᆡ 이ᄀᆞᆺ치 아니리니 네 임의 아븨 ᄯᅳᆺ을 알지라 **만일 젼과(前過)ᄅᆞᆯ ᄭᅩᆺ쳐 개심 슈덕ᄒᆞᆯ진ᄃᆡ 부녀 텬셩을 온젼이 ᄒᆞ고 다시 졍문의 보ᄂᆡ러니와 불연즉 부녀지졍을 ᄭᅩᆺᄎᆞ믄 니ᄅᆞ지 말고 다시 졍시의 문을 ᄇᆞ라지 못ᄒᆞ리니 이 글을 가져 쥬야 불히ᄒᆞ여 ᄌᆞ심ᄒᆞ고 어ᄌᆞ러온 잡념녀ᄅᆞᆯ ᄭᅩᆺ쳐 ᄇᆞ리라. 언파의 좌우ᄅᆞᆯ 호령ᄒᆞ여 쇼져의 치복(彩服)을 벗기고 일습(一襲) 청의ᄅᆞᆯ 닙히ᄆᆡ 미러 후당의 너코 녀계(女戒) 삼권을 주어 ᄆᆡ여 쥬야 숑독(誦讀)ᄒᆞ라 ᄒᆞ고 각별이 큰 쇄약(鎖鑰)을 가져 문을 줌으ᄆᆡ 기금을 친히 가져 ᄉᆞᄅᆞᆷ이 임의로 왕ᄂᆡ치 못ᄒᆞ고 밧그로 형극(荊棘)을 ᄲᅡ하 비됴(飛鳥)도 나라 드지 못ᄒᆞ게 ᄒᆞ며 ᄎᆞ후 됴셕(朝夕) 식상을 보ᄂᆡ되 화미 진찬을 ᄆᆡ이지 아니터라.**(권141)

양일아는 주태부인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부마의 부귀를 누리면서 살아 이런 거처와 음식을 견디지 못하는데, 그 한과 원망을 모두 계모와 그 아들들에게 거리낌 없이 욕하는 것으로 푼다.

이처럼 소당에 갇혀서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만 더 발하던 양일아는 뒤에 개과천선해서 정부에 돌아오는데, 방자하던 그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요조숙녀의 모습을 보인다.

3.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여성 감금의 성격과 의미

3.1. 여성 감금을 통한 여성 처벌의 성격

3.1.1. 가문의 이름으로 내밀화된 처벌

서론에서 전제한 것처럼, <완월회맹연> 속 네 가지 대표적 여성 감금의 예는 그것이 누명이든 아니든 문제적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자염은 시어머니 독살 시도, 여씨는 정성염에 대한 투기와 음

행 및 시댁에 대한 방자한 행동, 소교완은 정인성 가족 전체에 대한 악행, 양일아는 음행과 동기에 대한 폭력 등이 그 문제적 행위이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문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왜 모두 감금이라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실제 <완월회맹연>의 남성 인물들의 경우에도 문제적 행위에 대한 처벌로 감금의 양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태형(笞刑)이다. <완월회맹연>의 대표적 문제 인물인 정인중의 경우 집 밖에서까지 악행을 저지르다 겨우 정씨 남성들에 의해 구출되어 돌아오는데, 정잠은 아들 정인중의 잘못을 수죄하기 전에 먼저 모친 서태부인의 허락을 받고 나서 정인중을 형틀에 올려 매질하라 명한다. 또한 정인광 부부의 불화 상황에서 아버지 정삼에게 정인광이 내쫓길까 걱정된 할머니 서태부인은 정인광에게 태형을 내릴 것을 명하고, 이에 정삼은 40여 대의 매를 때리고 주위에서 만류하자 태형을 그친다.

여성의 문제적 행위에 대해 태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단 조선 사회의 여성에 대한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대의 <대명률>에 근거한 여성 처벌에서는 여성 특히 상층 여성에 대해 간통이나 살인의 죄명 이외에는 감옥에도 감금하지 않고, 또한 신체형 집행시에도 여성으로서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 태형 집행시 간음죄를 제외하고는 옷을 입고 형을 받게 했기 때문이다.[25] 실제 <완월회맹연> 속에서도 네 명의 감금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매를 맞는 것은 여성 인물들의 시비들이다. 특히 여씨의 시녀들은 두 번의 감금 과정에서 모두 오십장(五十杖)씩 매를 맞아 이후 여씨와 초당에 머물면서 여씨를 원망하고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 처벌에서 태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대 사회의 여성 처벌 양상에 근거한 것이면서 특히 이 작품의 향유층이 상층 여성 독자라는 점과 긴밀히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태형이 아닌 다른 처벌, 특히 국문장편소설에서 빈번하게 나

25) 심재우, 「조선시대의 법과 여성의 몸-여성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51, 역사실학회, 2013, 154~155쪽 참조.

타나는 집 밖으로의 축출[26]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27] 이는 일단 앞의 태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상층 여성 보호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집 밖의 여성은 그 자체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다른 국문장편소설들에서도 축출되어 도로유리(道路流離)하던 인물들은 후에 그 자체가 부정적 전력이 되거나 실절(失節)의 오해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시집간 상층 여성에 대한 처벌에서 집 밖 축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 안의 감금이 이루어진 것은, 특히 실절의 위기를 포함한 여러 집 밖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상층 여성 향유층과 밀접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 밖이라는 사회로부터는 보호의 의미를 지니는 이 감금이 집 안이라는 가문 사회에서는 가문의 질서를 파괴한 여성 인물, 혹은 가문에 오명을 남긴 여성 인물에 대한 격리의 의미를 지닌다. 작품 속에서 이 격리는 흙이나 가시덩굴로 높게 쌓은 담[28]으로 공간화된다. 특히 이 격리는 가문의 다른 여성인물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몰래 구멍 사이로 음식이나 기타 물건들을 통해 교통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여성 인물들에 대한 감금과 그로인한 격리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자연스러운 감계(鑑戒)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9] 나아가 감금을 통한 격리는

---

26) 이때 축출은 친정으로의 출거(黜去)가 아닌 집 밖으로의 축출을 말한다.

27) 장시광은 <완월회맹연> 어릴 때 부모와 헤어져 오랫동안 도로유리한 정월염에 대해, '정월염은 길 위에서 자신의 유가적, 여성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안온한 집안보다 오히려 황량한 길 위가 여성인물 단련에 더 적당한 장소가 되었다'(장시광,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 –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47, 동양고전학회, 2012, 35쪽.)고 보았는데, 정체성 단련의 여부를 떠나 정월염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감금 대상 여성들과 다른 조건이다.

28) 이는 <조씨삼대록>의 감금 공간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조자염을 가둔 구부인은 사람들의 왕래를 막고자 하여 취음정 주변에 가시나무 담을 쌓고, 조월염을 가둔 양인광은 은설정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세워 아예 왕래하는 통로를 막아버린다.

29) 이는 남성 인물들에 대한 태형이 신체형으로서 남자 형제들을 모아 놓고 공개적으

여성의 몸에 대한 공간적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집 안으로 공간이 제한된 여성에게 한 번 더 제한을 둠으로써 이중의 제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집 안의 동선이 활발한 여성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여성들로 나타난다는 점에서[30], 이들의 감금과 몸의 제한은 그 자체로 교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31]

이처럼 내부적으로 가문의 여성에 대한 보호와 격리의 이중적 기능을 하는 여성 감금의 가문 외적인 의미는, 가문의 문제가 가문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방비로서의 내밀화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인성은 이자염의 유모 혜월을 불러 왕술위의 초사를 주며 "죄는 강상(綱常)을 범했으니 법대로 하면 관형(官刑)에 처할 바지만 왕술위의 말을 일편되게 믿을 수 없으니 후정(後庭) 심처(深處)에서 수졸하게 한다"고 하면서 즉시 거처를 옮기라 명한다. 또한 양일아가 한난소를 때린 일로 처소에 근신하게 되었을 때 대모(大母)인 서태부인은 집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변란이 어찌 없겠는가만 이는 양반 부녀의 할 바가 아니니 이웃이 알게 하면 안 된다며 한탄한다.[32] 이처럼 이들의 문제적 행위는 법대로 하자면 가문 밖으로 나왔어야 하는 것이지만, 가문 외에 알려져서는 안 되기에 집 안의 감금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1.2. 자폐적 수계(囚繫)와 절반의 교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감금 과정에서 양일아

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30) 탁원정, 앞의 논문, 119쪽.

31) 흥미로운 것은 선인으로 누명을 쓰고 갇힌 이자염의 벽실이 몸 하나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좁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자염은 불편해하지 않고 베짜기까지 하고 있는데 비해, 친정과 시댁까지 자유롭게 오가던 여씨는 유일하게 가시덩굴 담을 뛰어넘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32) 태부인이 빵미를 합ᄒᆞ야 왈, 가ᄂᆡ의 여러 사ᄅᆞᆷ을 모호ᄆᆡ 엇디 변난이 업ᄉᆞ리오 노뫼 념녀ᄒᆞ미 오ᄅᆡ더니 과연 싱각의 나지 아니토다 이 엇디 ᄉᆞ문 부녀의 홀 ᄇᆡ리오 불가ᄉᆞ문어타인(不可使聞於他人)이니 한심ᄒᆞ미 이에 더으미 업고(권132)

를 제외한 여성 인물들은 누실의 죄인을 자처하거나, 누실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과(悔過)가 아닌 죽음을 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자염은 왕술위 초사에 의해 누명을 쓰자 당 밖에 내려가 죄를 청한 후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시녀들이 머무는 일종의 숙직실에서 석고대죄하는데, 이곳은 따라온 어린 아들 정몽창이 "이 방은 누츄ᄒᆞ고 옹식ᄒᆞ니 잇기 슬ᄐᆞ"하는 공간이다. 또한 이후 이자염은 시비들과 북원 초실로 옮겨가는데, 초실에 화기를 넣으려고 불을 떼려 하자 죄인의 몸으로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한다.

가시덩굴을 뛰어넘어 후당을 탈출했다가 다시 갇힌 여씨는 팔,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상한 상태에서 장씨 집안에 대한 욕을 낭자하게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울다가 기진맥진해 쓰러져 인사불성의 지경에 이른다. 이후로도 식음을 전폐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 결국 본인의 처소로 옮겨진다. 이후 평소대로 식사와 잠자리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나 여전히 남편과 장씨 가문에 대한 분노는 가시지 않아 자신을 간호하던 정월염에게 "죽어서 장씨가 아닌 여씨 문중에 묻히겠다[33]"고 한다.

소교완 역시 독약을 먹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누옥이 아닌 추란정에서 지내라고 했을 때, 누옥을 고집하고 그곳에서도 벽실이라는 더 고립된 곳으로 들어가 있다가 결국 폭우에 쓸려갈 뻔한다. 두 번째 감금 때에도 거적자리에 띠 베개로 소당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사를 잊은 듯하여 거의 시신에 가까운 형상이 되었으며, 정인성 형제가 누실에서 편안한 거처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도 자신은 구가(舅家)의 득죄한 죄인이라며 그대로 누실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여성 인물들의 이러한 일종의 자폐적 행위는 남편 혹은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부장에 의해 갇히는 피동적인 상황에서나마 발현되는 저항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 감금은 가문의 질서와 가부장제의 질서에

33) 쳡이 죽으나 몸이 규녀로 이시니 댱시 헛치례 문명이 우은지라 녀시 쳥산의 뭇치여 목쥐(木主) 녀시 가묘(家廟)의 둘지언졍 다시 댱부를 ᄇᆞ라지 아니리니 금일 ᄒᆞᆫ 말숨이 ᄎᆞ싱(此生) 영결(永訣)이라(권167)

순종하는 몸을 위한 근신(謹身)의 성격을 띠며 그 최종 목적은 교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저항을 통해 오히려 그 순간 자신의 몸에 대한 지배권을 자신이 행사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몸을 만들고[34], 결과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인물들의 교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일하게 자폐적 양상을 보이지 않는 양일아조차 개과천선해서 정부에 돌아올 때 '마지못해 돌아왔으며'[35], 이후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금이라는 근신과 교정을 통해 교화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교화의 결과 정씨 가문이라는 기존 사회에 대한 복귀와 적응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이다.[36]

또한 양일아는 다른 여성 인물들에 비해 4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을 얻어 생을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일아는 죽기 전에 자신의 과거 허물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박덕 불인'이라고 지칭하고, 양일아가 죽은 후 아들 정창헌이 시묘(侍墓)하고자 하나 정인성은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 먼저라며 시묘를 못하게 하여 양일아의 위패를 그녀의 처소 매화당에 봉안하고 상을 치른다.[37] 이것은 강상(綱常)을 어지럽힌 여성

---

34) 이 논의에서도 유교 이념을 체화한 인물이자 누명으로 감금된 이자염은 다소 모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일차적으로는 남편의 입을 통해 대신 전달된 시어머니 소교완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차적으로는 그런 명령을 효라는 이름으로 전달한 남편 정인성에 대해 '화염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꼿꼿이 베를 짜는 당당함'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저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5) 양쇼졔 마지 못ᄒᆞ여 구가(舅家)의 도라와(권161)

36) 져의 슈치ᄒᆞ미 너모 이ᄀᆞᆺᄐᆞ믈 보ᄆᆡ 도로혀 가련이 넉여 여러번의 ᄆᆡᆺ쳐ᄂᆞᆫ 엄졍ᄒᆞᆫ 싁위(色字)ᄅᆞᆯ 덜고 청ᄒᆞ여 ᄒᆞᆫ가지로 ᄌᆞ리의 쉬게 ᄒᆞ니 쇼졔 더욱 참황(慙惶)ᄒᆞ여 몸 둘 곳이 업셔ᄒᆞ더라.(권161)

37) 일일의 원군이 부인과 장ᄌᆞ 총직ᄅᆞᆯ 향ᄒᆞ여 **젼젼 허물과 당금의 부인과 부ᄌᆞ의 은혈 혜화로 인도의 듕슈(充數)ᄒᆞ여 영복을 안향ᄒᆞ고 완죵ᄒᆞ믈 ᄀᆞᆺ초 베플고 희허장탄 왈, 내 박덕 불인으로 엄경 편친을 당의 두고 셰연이 금일이 넘지 못ᄒᆞᆯ 거시니 녀ᄋᆞ로 쥐부 죵가ᄒᆞ여 고한이 업ᄉᆞ니 창현을 무ᄒᆞᆯᄒᆞ시믈 촉부(囑付)ᄒᆞ고, 엄연속광(屬纊)ᄒᆞ니** 창현 남ᄆᆡ 이호 벽용(擗踊)을 방인이 막불ᄉᆡ비ᄒᆞ더라. 묵직 산장을 네로 ᄒᆞ여 태쥐 반장ᄒᆞ고 총직 오곤계와 창현이 호상ᄒᆞᆯᄉᆡ **창현 공직 부젼의 시묘ᄒᆞ믈 고ᄒᆞᆫ딕 공이 경계 왈, 젼이 싱지라 ᄒᆞ시고 텬지 소싱과 지지소양의 위친이 막대ᄒᆞ니 어미도 위ᄒᆞ려니와 아비ᄅᆞᆯ 도라보지 못ᄒᆞᆯ소냐 십여셰 충년 셔싱이 시묘**

의 부정적 전력에 온전히 관대할 수 없는 서술자의 단죄(斷罪)로 보이기도 한다. 소교완이 시어머니 서태부인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10년 단명하게 되는 것[38]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 감금의 상황은, 여성의 몸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면서[39] 강제로 감금하는 형식의 처벌을 통해서는 여성의 행위가 교정되거나 자연스럽게 교화될 수 없다는, 곧 가부장적 처벌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강상을 범해 감금되었던 전력을 가진 여성 인물에 대한 용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서술자의 도덕의식을 내비치고 있다.[40]

3.2. 시댁과 친정에서의 감금의 성격

3.2.1. 일상 공간의 비일상화, 시댁

<완월회맹연>에서 이자염이나 여씨의 감금이 이루어지는 시댁은 결

공산의 과익(過哀)ᄒᆞᆫ즉 위틱ᄒᆞ미 쉬오리니 아라 ᄒᆞ라. 공직 복슈 청교의 불감역명(不敢逆命)ᄒᆞ여 시묘치 못ᄒᆞ고 반구묵쥬ᄒᆞ여 양시 졍침 ᄆᆡ화당의 봉안ᄒᆞ니(권178)

38) ᄎᆞ시 소부인이 목욕 치직ᄒᆞ고 후원의 삼층과 칠단을 졍결이 무으고 머리 풀고 볼 버셔 죵일 죵야토록 도츅(禱祝)ᄒᆞᄂᆞᆫ 말이 ᄌᆞ긔 나흐로 존고의 셩슈를 더어지라 츅원ᄒᆞ더니 창합(閶闔)의 ᄉᆞ못ᄎᆞ 소부인 진혼싱빅이 훤소ᄒᆞᄆᆡ **효ᄌᆞ 현부의 졍니를 가측ᄒᆞ샤 소부인 나흘 더러 십년을 태부인긔 더으니 임의 희운ᄒᆞ니 엇지 신긔치 아니리오**(권179)

39) 한길연은 국문장편소설 속 남편의 폭력에 대한 논의에서, 남성의 폭력을 '여성의 몸을 남편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되는 몸이자 대상으로, 남편에게 속한 것으로 규정한 뒤 통제하려는 가부장제적인 독선적 이데올로기'로 분석하면서, 남성 폭력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09쪽.

40) 양일아의 위패가 매화당에 봉안되어 초상을 치르는 상황에서 집안의 자손들 이십여 인 이상이 모인 것에 대해 서술자는 **"긔복ᄌᆞ의 직 칠인이오 삼녀며 딜항(姪行) 유ᄌᆞ 유뷔 이십 여인이니 양부인의 초년을 상상ᄒᆞᄆᆡ 화복(禍福)의 뉸희(輪廻)ᄒᆞ미 니러ᄒᆞ더라"**라고 하는데,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이런 성대한 상례를 치를 정도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양일아가 그 정도 누리면 충분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담지한다고 할 수 있다.

혼한 여성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일상의 공간이다. 국문장편소설은 다른 소설들에 비해 특히 여성들의 일상이 핍진하게 그려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41], <완월회맹연> 또한 일상의 서술 비중이 높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42], 특히 홀로 남은 집안의 대모(大母)인 서태부인을 중심으로 여성의 일상이 풍부하고 충실하게 그려지고 있다.[43]

17세기의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에서 여성 공간의 확대와 그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확대가 당대 독자들의 흥미 충족은 물론 실생활에서의 여성들의 삶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것[44]으로 평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완월회맹연>의 여성 독자들 역시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듯한 흥미와 공감을 느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성 감금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상 공간의 성격은 변한다. 무엇보다 평소 혼정신성이 이루어지고 식사를 함께 하며 담소를 나누던 가족 구성원 간에 가두기와, 내쫓기, 죽이기 등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자염의 경우,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가족 구성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으나[45], 감금 상황에서는 어린 아들 정몽창과도 눈물 어린

41) 이지하, 「<현씨양웅쌍린기>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박영희, 「<소현성록>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송성욱,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정병설, 『<완월회명연> 연구』, 태학사, 1998,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지하, 「<옥원재합기연>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이지영, 앞의 논문.

42) 이지영, 앞의 논문, 34~35쪽.

43) 이지영, 위의 논문, 45~48쪽 참조.

44) 박영희, 앞의 논문, 149쪽.

45) 샹부인이 쇼이 ᄃᆡ왈, 무죄ᄒᆞᆫ 현쳐를 공연이 누셜의 두ᄂᆞᆫ 불인의 거시 므어시 어엿버 그만 괴로옴도 더으지 아니리잇가. 도라 상셔다려 왈, 챵ᄋᆡ 어미를 불너 울미 ᄌᆞ위 더욱 우샹ᄒᆞ시니 이졔ᄂᆞᆫ 현딜이 챵ᄋᆞ의게 ᄌᆞ모 쇼임을 폐치 마라 ᄇᆡ 곰 유ᄋᆡ(幼兒) 다시 어미 브ᄅᆞ미 업고 니현딜의 앙ᄉᆞ봉슌(仰事奉順)의 동동 촉측ᄒᆞ여 ᄑᆡᆼ임(烹飪) 시션(時饌)의 젹구(適口) 합즁(合中)이 ᄒᆞ던 근고를 면코져 말지어다. 샹

이별을 해야 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이름으로 갇히고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처절한 죽음을 맞을 위기에 처한다. 여씨의 경우, 평소에도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소외된 인물이었는데, 감금의 상황에서 이는 극한에 이르러 아예 가족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완전한 격리 상황에 놓이고, 탈출 과정에서 얻은 육체적, 심리적 상처로 인해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46]

이처럼 가족 구성원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하고, 가해나 피해의 양상이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일상은 사건과 갈등 위주로 재단되면서 불연속의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후 지속되는 일상 역시 그 이전의 일상과는 달리 부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47]

> 시야의 태부인이 한님을 명ᄒᆞ여 상국의 침구를 만화헌의 옴기라 ᄒᆞ고 ᄉᆞ지 관환으로 ᄒᆞ여곰 침구를 옴기고 혼졍을 파ᄒᆞᄆᆡ 상국을 뫼셔 만화헌의 나아가 이윽이 뫼셧다가 상요의 나아가시믈 보고 퇴ᄒᆞ여 ᄂᆡ당의 니ᄅᆞ니 소부인이 또 ᄒᆞᆫ 장복(章服) 관픽(冠佩)를 벗고 상하의 잠간 헐소ᄒᆞᄆᆡ 니 한 냥부인이 됴 댱 이부인으로 더브러 상하의 뫼셔 말ᄉᆞᆷᄒᆞ더라 츄창ᄒᆞ여 나아가니 부인이 문 왈, 엇지 지금 ᄌᆞ지 아니코 분쥬ᄒᆞᄂᆞ뇨. 쵱지 ᄃᆡ왈, 야애 취침ᄒᆞ시믈 보옵고 드러오노라 ᄒᆞ노니 ᄌᆞ연 밤드도소이다 금일은 냥져졔 이의 다 머므ᄅᆞ시니 뫼셔 말ᄉᆞᆷᄒᆞ다가 나가리로소이다. 인ᄒᆞ여 좌의 나아가 죵용히 담화ᄒᆞᆯᄉᆡ 양희의 작인이 극션ᄒᆞ믈 닐너 남ᄆᆡ 다 깃븐 빗치 ᄀᆞ득ᄒᆞᄃᆡ 부인이 굿ᄐᆞ여 귀에 머므ᄂᆞᆫ 일이 업고 또 ᄉᆡ오ᄒᆞ미 업셔 모로ᄂᆞᆫ ᄃᆞᆺ ᄒᆞ더니 ᄌᆞ네 다 ᄒᆞᆫ가지로 깃거ᄒᆞ믈 보고 문득 우어 ᄀᆞᆯ오ᄃᆡ, 여등이 셔모를 엇고 져리 깃거ᄒᆞ거니와 져 양네 만일 ᄉᆞ오납기 날 ᄀᆞᆺ틀진ᄃᆡ 여등이 불 우ᄒᆡ 기롬을 더음 ᄀᆞᆺᄐᆞᆫ 화를 만나리니 깃브미

셰 홈쇼 ᄃᆡ왈, 근봉교의(勤奉敎矣)리니 남녀 쇼임이 다르오ᄂᆞ 엇지 이만 일의 두 번 명ᄒᆞ시믈 기다리리잇고. 셔부인이 쇼왈, 유ᄌᆞ를 포휼(抱恤)홈과 감지(甘旨)를 밧들믄 오히려 의방ᄒᆞ여 좀쳐로 ᄒᆞ려니와 뵈 ᄇᆞ고 바ᄂᆞ질ᄒᆞ여 의복 한셔(寒暑)를 맛초기ᄂᆞᆫ 십싱 구ᄉᆞᄒᆞ여도 니현딜을 밋지 못ᄒᆞ미 이시리라.(권88)

46) 여씨가 탈출 과정에서 얻은 낙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인 장세린이 여씨를 구타해 죽이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된다.(권168)

47) 탁원정, 앞의 논문, 132~133쪽.

> 업슬가ᄒᆞ노라. 홍지 졍식 ᄃᆡ왈, 태태 엇지 이ᄀᆞᆺ튼 교(敎)를 두샤 셩체 스ᄉᆞ로 욕되믈 싱각지 아니시ᄂᆞ니잇고 쇼지 비록 지감이 불명ᄒᆞ오나 잠간 슬피건ᄃᆡ 결비범상지인(決非凡常之人)이오나 ᄉᆞ오나오ᄆᆡᄂᆞᆫ 진월 ᄀᆞᆺ튼 위인이나 현불초간 엇지 ᄌᆞ졍 존위로써 져의게 비ᄒᆞ리잇고. 부인이 스ᄉᆞ로 실언ᄒᆞ믈 ᄭᆡᄃᆞ라 웃기를 마지 아니 ᄒᆞ더라.(권153)

위 인용문은 정부 집안사람들이 모여 환담하는 장면이다. 이자염 감금 이후에도 이자염은 물론 그 아들 죽이기를 끊임없이 시도했던 가해자 소교완과 피해자 이자염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이나, 그런 소교완이 순간 자신의 사나움을 인정했다가 말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부끄러워 웃는 모습 등은 부자연스러움을 넘어서 불편하기까지 하다.

이처럼 가족들과 담소하고 부모에게 혼정신성하며 차와 음식을 즐기는 일상의 바로 곁에 이런 일상을 뒤흔드는 비일상이 병존하는 것은 시댁을 낯설고 불안정한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이때, 풍부한 일상 서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듯한 흥미와 공감을 느끼는 한편에서, 독자들은 일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도 일시에 생존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여성의 위치를 들여다보며 긴장과 공감을 느꼈을 것으로 볼 수 있다.[48]

3.2.2. 명예살인이 시도되는 공간, 친정

<완월회맹연>에서는 다른 국문장편소설들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친정에서의 감금 양상이 두 차례 나타난다. 또한 두 경우 모두 감금 이전에 친정아버지에 의해 추문(推問)당한 후 독약으로 살해당할 위기에 처

48) 그런 점에서 이때 일상은, '<완월회맹연>에서 상부인이나 정잠의 며느리 편들기가 일상 속 작은 일탈이 되며, 이것이 당대 여성들의 억압된 욕망 표출이자 바람을 담아내고 있다'(한길연,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 - 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139~143쪽)는 맥락에서의 일상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한다. 친정에 온 딸에게 행실을 문제 삼아 독약을 내리는 것은 국문장편소설의 첫 작품인 <소현성록>에서도 나타난다. 주인공 가문인 소부의 둘째딸인 소교영이 12세에 이한림과 혼인 후 역적으로 몰린 시아버지의 죄에 연좌되어 유배 갔다가 이웃 사람 유장과 사통한 것이 발각 나 친정어머니 양태부인에게 독주(毒酒)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특히 양태부인이 소교영을 꿇려 놓고 호통치며 독주를 내리는 장면은 앞서 제시한 양일아의 독약 먹는 장면과 흡사하다.

비록 아들의 말이 모호하여 자세하지는 않으나 부인이 한번 듣고는 딸이 실절한 것은 알았다. **그러자 부인은 갑자기 매우 화가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교영을 불러오게 하여 당 아래에 꿇리고 죄를 따졌다**.

"네가 타향에서 유배살이를 했으나 몸을 깨끗이 하여서 돌아올 것이거늘 순간 실절하여 죽은 아비와 산 어미에게 욕이 미치며 조상에게 불행을 끼치니 어찌 차마 살려 두겠느냐? 친정에는 못난 딸이고 시집에는 더러운 여자가 지어 천지간에 죄인이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 자식의 정을 끊어 한 그릇 독주를 주니 빨리 마셔라."

교영이 아뢰었다.

"제가 비록 잘못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남은 목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부인이 꾸짖었다.

(…)

말을 마치고 약을 빨리 마시라고 재촉하며 교영에게 먹이니 월영이 머리를 두드리며 애걸하고 석파 등이 계단 아래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슬피 빌며 살려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부인의 노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매서워 겨울바람 부는 하늘에 걸린 찬 달 같았다. 소생은 눈물이 비단 도포에 젖어 자리에 고였지만 입을 닫고 애원하는 말은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그 속뜻을 알 수가 없었다. 부인은 월영과 석파 등을 앞뒤에서 부축하여 들어가게 하고 그들의 청을 끝내 들어주지 않은 채 교영을 죽였다. 그 시신을 누일 빈소를 별채에 마련하니 월영과 소생이 서러워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다.[49]

이처럼 유사한 처벌 과정이지만 마지막은 그대로 죽는 것과 시아버지의 편지에 의해 회생약을 먹고 살아나는 것으로 차이가 난다. 소교완 역시 독약이 더디 끓는 과정에서 남편 정잠이 보낸 편지에 의해 독약을 면하게 된다. 이들이 교영과 달리 죽음을 면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죄의 성격이 소교영과 같은 실절(失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차적으로는 친정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남편이나 시아버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친정에서 독살이 시도되고 이후에도 감금이라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완월회맹연>은 딸에게도 매우 엄격한 친정, 딸과 거리 있는 친정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것이 중심 가문인 정부와 그 딸들과의 관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심가문의 딸과 며느리의 친정이 다른 양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50] 그럼에도 결국 친정에서 딸에 대한 독살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친정에서 딸의 살인이 이루어지면서 덕과 행실에 매우 단호한 면모를 보이는 작품으로,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감계(鑑戒)를 주고 나아가 수신서(修身書)로서의 역할을 하는 <소현성록>'[51]과의 거리가 확인된다고 하겠다.

4. 여성 공간의 유형성과 그 변주: 결론을 대신하여

여성 인물의 처벌 과정에서 여성 인물이 집 안의 특정 공간에 갇히는

49) <소현성록> 권1(정선희, 조혜란 역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소현성록1』, 소명출판, 2010, 56~57쪽)

50) 이는 무엇보다 정부의 딸들은 결혼 후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정잠의 사촌 형제인 정염 역시 평소 강렬한 성품으로, 딸 정성염이 정인중의 모해로 음란하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독약을 가지고 정성염에게 가서 자결을 명하지만, 이후 그것이 누명임을 알고는 명을 거둔다.(권57)

51)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 105~106쪽 참조.

것은 17세기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18부터 본격적으로 창작되고 향유된 일련의 국문장편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면서, 국문장편소설 속 여성과 공간의 특정한 유형성을 드러내고 있다.

<완월회맹연> 속의 여성 감금 또한 그런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정인성의 부인 이자염과 장세린의 부인 여씨처럼 시댁의 벽처에 갇히는 것은 국문장편소설의 여성 감금에서 가장 일반적인 양상이다. 이자염의 경우는 실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선인에 대한 악인의 모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에 의해 갇히게 되는데, 이 역시 <소현성록>에서부터 나타난 것이며, 이자염이 누실에서 시어머니 소교완의 명을 받고 베짜기를 해 내는 상황은 <조씨삼대록>에서 취음정이라는 냉옥에 갇힌 조자염의 베짜기 양상과 거의 일치한다. 그런가 하면 여씨와 같이 실제 문제적 행동을 한 인물의 경우 시댁에 갇히기보다는 친정으로 출거당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52]. 여씨 역시 원래는 혼례 날부터 박색이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박대를 당하던 중 장세린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도하다가 출부(黜婦)가 되어 친정에 있던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시댁에서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면 시댁에 돌아오는 경우가 드문데, 여씨는 남편 장세린과 정성염이 혼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후원의 초실에 갇히게 된다. 더구나 정성염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초실 주변의 가시덩굴 담을 뛰어넘는, 즉 일종의 탈출까지 시도하고 있다. 여씨의 이와 같은 모습은 악인형 여성들이 보여주는 극악스러움과 일맥을 이루면서도, 시댁이라는 공간의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일탈과 반항이라는 새로운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 인물의 처벌 과정에서 친정으로 출거되는 것 역시 일정한 유형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여씨를 비롯해 정인성 부부에

52) <소현성록>에서 문제적 인물인 소현성의 셋째 부인인 여씨나 소운명의 셋째 부인인 정씨가 모해가 발각된 후 친정으로 출거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문제적 인물의 출거는 여러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 끊임없는 악행의 과정에서 소교완이 결국 출거된 것도 그에 부합된다. 그런데 소교완의 첫 번째 친정행과 정인성의 첩 양일아의 경우 출거가 아닌 친정에서 자처한 귀녕의 형태로 친정행이 이루어지고 있다.[53] 소교완의 친정에서는 소교완의 악행을 저지하기 위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소교완을 귀녕시켜 독살시키자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딸 양일아의 악행에 분노한 양순 역시 정씨 부중에 편지를 보내 양일아의 귀녕을 청하고 역시 딸을 독살시키고자 한다. 친정 쪽에서 먼저 문제적 딸을 처벌하기 위해 귀녕의 양상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살이라는 극단적 처벌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친정에서 감금이 이루어진다. 친정에서 더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데는 이 딸들의 문제적인 성향과 친정아버지의 불의를 못 참는 강직한 성격이 더불어 작용한다. 소교완의 아버지 소희량은 평소 딸의 성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정씨 집안에 얼굴을 들 수 없다며 부끄러워했고, 양순은 자신의 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익히 양일아의 성품을 듣고 있다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절망을 한 상태였다. 이처럼 아버지와 딸의 다른 성향과 두 사람의 불화가 친정에서의 독살 기도와 감금이라는 변주적인 양상을 만들어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교완이나 양일아는 문제적 인물임에도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정부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54] 그런 점에서 귀녕을 자처한 친정행과 친정에 가두기는, 문제적 딸에 대한 처벌과 교정의 의미에 더해 시댁으로의 복귀에 근거를 제공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댁에 감금되기나 친정행 혹은 친정에서 감금되기의 서사는

53) 사실 두 번째 친정행도 남편인 정잠이 뒤따라 소부에 이르러 자결한 소교완을 구호했다는 점에서 엄밀한 출거라고 보기 어렵다.

54) <소현성록>에서 출거된 여씨의 친정에서 크게 노하며 소현성을 해치려 하고 여씨를 개가시키려 하며, 정씨의 경우도 출거 후 귀양을 간 부친을 따라 따라갔다가 부친이 죽은 후 귀양지에 남아 재가한 것이나, <완월회맹연>에서 친정아버지 여원홍에 의해 친정으로 돌아온 여씨가 며칠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완월회맹연>을 비롯한 국문장편소설의 여성 향유층에게 허구의 공간에서나마 집 밖이라는 공간의 자유로움과 해방감, 일탈의 대리만족을 주기 어렵다.[55] 더구나 당대 여성들에게 시댁은 그 자체로 감금의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시댁에 갇히기는 일종의 이중의 감금 양상으로 억압감을 배가시킬 수 있다. 그나마 유일한 해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친정에서의 감금 역시 이율배반적 구속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집 밖 축출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감금 상황에서의 자폐적 행위를 통한 저항의 목소리[56]에 자신의 목소리를 포갤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까운 친정만이 아니라 먼 친정의 설정을 통해, 결국 시댁이 내가 있어야 하는 근거지(根據地)임을 확인하고 정향감[57]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완월회맹연>에서 나타난 여성 인물의 감금 양상은 국문장편소설 속 여성과 공간의 특정한 유형성을 공유하면서도 '친정 감금'이라는

---

55)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의 집 밖 공간에 대해 여러 곳을 유리하는 경우와 특정 공간을 지향하는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 집 밖 공간에 대한 대리만족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삼대록계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의 길을 떠나는 여성 인물을 논의한 정선희는 '당시의 여성들이 집 밖에 나가 일정 기간을 떠도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기에 그들의 경험에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다.(정선희, 앞의 논문) 한편,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취미궁과 같은 선계 공간에 대해 한길연은 '시댁이라는 갑갑하고 불평등한 공간 속에서 주로 지내야 했던 당대 여성들에게는 큰 위안과 대리만족을 주는 공간'이라고 보았으며(한길연, 「대하소설 속 독특한 여성공간의 탐색을 통한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1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이런 맥락에서 박은정은 '취미궁을 헤테로토피아적 성격을 지닌 공간'이라고 보았다(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한민족어문학』 60, 한민족어문학회, 2012)

56) 이자염과 같은 선인형 여성들의 경우, 모함 등에 연루되었을 때 감금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근신하면서 일종의 감금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자염이 모해를 받고 바로 시녀들의 거처에서 지낸 것이나, 장성완이 친정에 가서 일 년 내내 베옷을 입고 지낸 것, 정월염이 이씨 부중에 있을 때 벽처에서 죄인을 자처하며 지낸 것 등이 그런 예이다. 이 때도 이들의 결벽증적인 도덕관념이 드러나는 한편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자폐 상황을 통한 목소리 내기를 엿볼 수 있다.

57) 정향감은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공간에 안전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윤, 1999, 143쪽.

변주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주된 향유층인 상층 여성 독자들에게 제한된 공간과 이중적 구속이라는 억압감을 주는 한편에, 내부 공간의 안도감과 시댁이라는 근거지에 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1. 자료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180권 180책,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2. 단행본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1~325쪽.

이-푸 투안,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윤, 1999, 143쪽.

3. 논문

김서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천상계의 특성과 의미 : 모자 관계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8, 한민족어문학회, 2014, 361~390쪽.

박영희, 「<소현성록>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149쪽.

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한민족어문학』 60, 한민족어문학회, 2012, 85~124쪽.

송성욱,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378~400쪽.

심재우, 「조선시대의 법과 여성의 몸-여성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51, 역사실학회, 2013, 147~179쪽.

이은경,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어머니의 양상과 의미」, 『개신어문연구』 21, 개신어문학회, 2004. 149~181쪽.

이지영,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

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33~57쪽.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 인식의 다층적 면모」,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11~145쪽.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 83~111쪽.
임형택, 「17세기규방소설의성립과<창선감의록>」, 동방학지57, 연세대국학연구원, 103~175쪽.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09~343쪽.
_____,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 –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47, 동양고전학회, 2012, 7~50쪽.
_____,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경상대학교배달말학회, 2009, 217~255쪽
_____,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언어학, 2009, 223~269쪽.
_____,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87~232쪽
_____,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365~410쪽
_____,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87~232쪽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1998, 45~62쪽.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 고전소설 속 여성들의 길 떠나는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103~132쪽.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대박사학위 논문, 2005, 132~133쪽, 154~158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 - 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125~149쪽.
_____,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69~121쪽.
_____, 「대하소설 속 독특한 여성공간의 탐색을 통한 문학치료」, 『문학치료연구』 1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41~74쪽.
_____,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옹서대립담 연구: 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277~315쪽.
_____,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희담(戱談)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73~310쪽.
한정미, 「<완월회맹연> 여성 인물간 폭력의 양상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435~397쪽.

Abstract

Confinement of Women in the Full-length Novel <Wanwolhoemaengyeon>

Tak, Won-jung

This study examined the four forms of confinement of women in <Wanwolhoemaengyeon> and diagnosed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confinement of women in the piece.

The first form of confinement is 'confinement in the in-law's house.' Gyo Wan So framed poisoning to eliminate her daughter-in-law, Ja Yeom Lee, and confined her in a secluded spot until she is almost killed. Yeo is confined in the greenhouse in the backyard as she was enraged by the news that her husband, Se Rin Jang, married another woman. The next form is 'confinement in their parents' house.' So was sent to her parents' house twice because people found out about her harassment of Mr. In Sung Jung and his wife. She was confined in the courtyard of her parents' house after the poisoning or suicide. Il Ah Yang, who is In Sung Jung's mistress, was sent to her parents' house as she tried to harm the wife and other mistresses and she is confined in the courtyard after she barely escapes from her father's poisoning.

Women's confinement mostly represents 'secret punishment in the name of family.' Second, it can mean 'autistic punishment and a half correction.' Third, it is 'making the ordinary space of home unordinary.' Fourth, it is 'the parents' house where honorary murder is attempted.'

The confinement of women in <Wanwolhoemaengyeon> shares the new form of women and space in a full-length novel, while stressing the variation of confinement in the parents' house.

Key words : Confinement of Women, in-law's house, parents' house , a secluded spot, secret punishment, autistic punishment, a half correction, honorary murder

■ 본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접수되어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